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1996. 12.

김 성 철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오 승 렬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이 현 경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 기 동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요 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危機水準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耐久力을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권력엘리트(power elite),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체제(regime), 북한이란 나라를 의미하는 체계(system) 등 세 가지의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체제”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1986년~1995년)의 북한체제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사회주의권 붕괴 직전에 발간한 *Grand Failure* 「대실패」에서 설정했던 10가지 指標를 수정·보완하여, 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등 5개 분야에 걸친 15개 RINU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들 지표를 다시 37개의 측정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표 참조).

여기서 指標(indicator)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기 보다는 위기의 정도를 반영하거나 또는 대표하는 것들이다. 각 지표의 위기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각 지표별·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30명의 탈북자와 面談을 실시하였고, 면담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統計資料를 활용하였다.

지표의 위기지수와 체제전반의 위기지수는 모두 1~4로 표시하였고, 각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은 체제에 전혀 危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임.
- 2는 체제에 위해하지 않고 대체로 안정적임.
- 3은 체제에 대해 위해하지만 정도가 낮음.
- 4는 체제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매우 높음.

2. 브레진스키 지표에 준거한 북한체제의 위기수준

브레진스키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이 위기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총 30의 위기지수에서 北韓은 8을 기록하여 中國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브레진스키 지표와 척도를 준거로 한 경우 現 北韓體制의 위기지수가 17을 상회하여 붕괴직전의 소련(15), 체코슬로바키아(16), 루마니아(18) 등의 수준과 근사함으로써 체제위기에 진입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소련 및 동구와 다른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 브레진스키 지표에 의한 위기지수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限界가 있다. 브레진스키 지표들은 지나치게 내면세계 혹은 이념 분석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북한과 같이 서구식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체제를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RINU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였다.

〈표〉 RINU지표 및 측정항목

분야	지 표	측 정 항 목
이 념	공식이념의 기능*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집단주의 명제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 실질적 대가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엘 리 트	엘리트의 사기*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엘리트 갈등	집단적 갈등 유무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관료기구의 기능	상부지침의 침투력 하위조직의 자의성
경 제	사적 경제영역*	사적 경제영역의 비중
	생활수준*	식생활 생활필품 및 주거지 GNP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무역, 외채
통 제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이동 탈북자 증감추이**
	정치적 반대	불만표출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체제비판 행위*
	반문화의 형성	청소년 문화 종교활동* 전통적 집단 의식
대 외 관 계	외부정보의 유입	남한변화의 인지도 중국변화의 인지도
	안보자원의 확보**	곡물 생산량과 외부유입량 원유 도입량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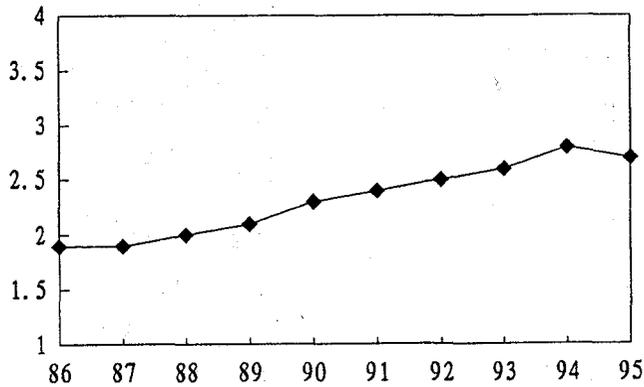
주: *표는 브레진스키의 10가지 지표에 상응하는 RINU 지표 또는 측정항목임.

**표는 탈북자 면담(30개 문항)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로서 통계 또는 신뢰성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위기지수를 평가할 RINU 지표 또는 측정항목임.

3. RINU 지표에 준거한 북한체제의 위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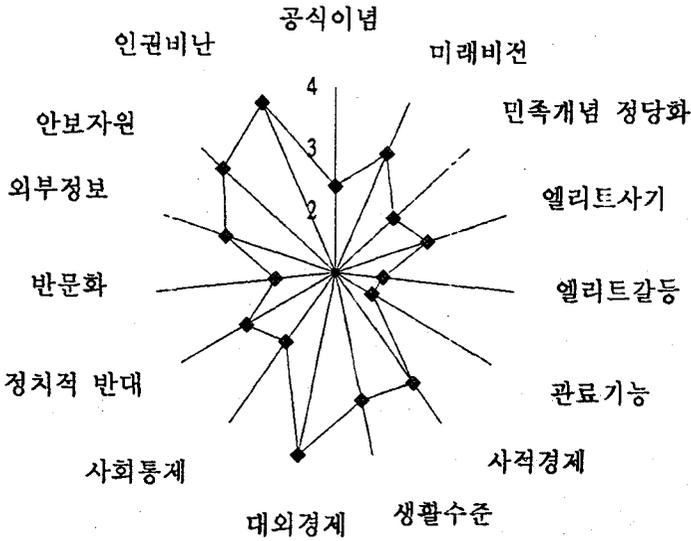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지수는 198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 體制危機의 臨界點 (critical limit)인 2.5(브레진스키의 15에 해당)를 이미 통과하였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에서 체제위기 임계점 2.5는 척도 1~4의 중간지수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안정과 위기를 대표하는 지수간의 실질적인 드레쉬홀드(threshold)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림 1> 북한 체제의 전반적 위기지수 증가추이



주: 1995년의 전체 및 일부 지표들의 위기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위기지수의 실질적 감소라기 보다는 1995년도에 대해 응답한 탈북자 중에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보는 고위 계층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임. 따라서 실질적 의미에서 1995년의 위기지수는 1994년을 능가한다고 판단됨.

<그림 2> RINU 지표들의 위기수준에 비추어 본 체제의 강·약점



체제위기 임계점 통과가 곧 체제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위기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체제 차원에서 더 이상 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권력엘리트”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체제가 불안한 이상 김정일이 외견상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해도 그의 집권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탄 선장이 아무리 건장하다 해도 그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최대 弱點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

제적으로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지표), 국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미약하다는 점(「대외경제관계」 지표), 곡물과 유류 등 안보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안보자원의 확보」 지표) 등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취약성은 “자주”라는 구호아래 폐쇄와 단절 정책을 취해 온 북한 체제의 고유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러시아 등 기존 동맹국들로부터의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비사회주의권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이런 취약성은 체제 위기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 체제의 強點은 상의하달의 관료적 침투력이 아직도 무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관료기구의 기능」 지표)과 당 간부를 중심으로한 엘리트의 응집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엘리트 갈등」 지표)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상층부의 공식적인 전달 메카니즘과 인적 요소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강점은 친인척에 의한 권력 독점, 치밀한 계급정책을 통한 사상성 검증, “당적 지도” 원칙의 고수를 통해 사람과 기구를 끊임없이 정비해 온 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큰 유산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反문화의 형성」 지표)을 알 수 있다. 단, 유의할 것은 이 지표 중 청소년문화 항목만큼은 높은 위기지수를 기록했다는 점

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문화가 많이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 체제의 내구력 전망

북한 당국이 현재와 같은 위기수준 증가추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위기지수가 2001년~2008년 사이에 體制變革 臨界點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시기가 체제변혁의 예상 연도이며 향후 5년~12년에 해당된다.¹⁾

현 체제에 위협적인 집단은 成分別로는 동요계층, 職業別로는 농민과 노동자, 學歷別로는 전문학교 졸업자와 고등중학교 졸업자, 居住地別로는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당원 멤버십別로는 非黨員 등으로 분석된다.²⁾ 다시 말해 이들 집단에 속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속성이 가장 많이 훼손되어 있는 바,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직업별에서 지식인·해외경험자가 예상과는 달리 농민·노동자에 비해 체제에

1) 계량적으로 이 시기는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의 지탱 이유로 지적한 「공식이념의 기능」 및 「사회통제」라는 두 가지 지표들의 위기지수 변화의 최적함수(회귀방정식)가 체제변혁 임계점인 3.0~3.5를 통과하는 시점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성분별 집단에서 적대계층 그리고 거주지별 집단에서 양강도가 빠져있다.

덜 위협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전자가 체제의 수혜계층으로서 일부의 불만을 감수하는 반면, 후자는 생활이 지극히 열악한 소외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만일 급격한 체제변혁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촉발시키는 주체가 누구일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동요계층, 농민과 노동자, 전문학교 졸업자와 고등중학교 졸업자,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비당원집단들이 중첩되는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疎外集團에 의한 저항이 발생할 경우,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조직화된 저항 형태를 띠기 보다는 응축된 불만이 일시적으로 분출하는 非組織的 蜂起의 형태가 될 것이다. 소외된 집단에 의한 폭발적인 비조직적 봉기의 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층부의 응집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조직적 봉기는 체제변혁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변화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조직적 봉기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엘리트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빚어져 예측불가능한 混沌의 상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體制變革이 총체적인 體系崩壞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내에서 체제변혁이 발생한다해도 주변국의 입장과 우리 한국의 대응능력에 따라 체제의 변혁이 북한이라는 총체적 체계의 해체로 진행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포괄하는 한반도를 위요한 국제관계에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체제변혁에서 총체적 체계붕괴로의 계기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북한 당국이 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공식 부문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반적인 위기수준이 정체 내지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비공식부문을 수용한다는 것은 漸進的 改革의 길로 들어 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개혁은 주로 經濟分野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수준을 억제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경제분야의 개혁 내용으로는 대내적으로 부분적인 암거래 행위의 제도권 흡수, 시장가격에 의한 일부 공업소비재의 거래 허용, 농업 책임생산제의 도입, 부농산품 거래 허용, 기업 및 행정단위에 대한 경제분권화 정책 등이며, 대외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대상의 확대, 북·중국경지대에서의 무역거래 허용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하는 바, 단기적인 위기수준의 저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목 차

제 I 부 서 론	1
제1장 문제의 제기	1
제2장 분석의 틀 및 기법	3
1. 분석 수준으로서의 “체제”	3
2. 지표의 설정	8
3. 분석기법	19
제 II 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지표별 위기수준 평가	22
제3장 체제 위기수준 개관	22
1. 브레진스키 지표에 의한 평가	22
2. RINU 지표에 의한 평가	25
제4장 이념분야 평가	31
1. 공식이념의 기능	31
2. 미래에 대한 비전	47
3.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53
제5장 엘리트분야 평가	60
1. 엘리트의 사기	60
2. 엘리트 갈등	67
3. 관료기구의 기능	77

제6장 경제분야 평가	83
1. 사적 경제영역	83
2. 생활수준	87
3. 대외경제관계	97
제7장 통제분야 평가	101
1. 사회통제	101
2. 정치적 반대	113
3. 반문화 형성	122
제8장 대외관계분야 평가	130
1. 외부정보의 유입	130
2. 안보자원의 확보	138
3.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143
제Ⅲ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내구력 전망 및 결론	148
제9장 체제 내구력 전망	148
1. 급격한 체제 내구력의 소진	148
2. 점진적 개혁 및 내구력의 유지	153
제10장 요약 및 결론	155
<부록 1> 면담 체크리스트	163
<부록 2> 면담자 리스트	184

그림 목차

<그림 2.1> 세 차원의 측정 모델	9
<그림 3.2.1> 전반적 위기지수 추이(RINU 지표)	26
<그림 3.2.2> RINU 지표별 위기지수 비교 (1994년 기준)	26
<그림 4.1> 공식이념의 기능	31
<그림 4.2> 미래에 대한 비전	47
<그림 4.3>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53
<그림 5.1> 엘리트의 사기	60
<그림 5.2> 엘리트 갈등	67
<그림 5.3> 관료기구의 기능	77
<그림 6.1> 사적 경제영역	83
<그림 6.2> 생활수준	87
<그림 6.3> 대외경제관계	97
<그림 7.1> 사회통제	101
<그림 7.2> 정치적 반대	113
<그림 7.3> 반문화의 형성	122
<그림 8.1> 외부정보의 유입	130
<그림 8.2> 안보자원의 확보	138
<그림 8.3>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143

표 목차

<표 2.2.1> 브레진스키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비교	11
<표 2.2.2> 브레진스키의 위기지수 순위와 실제 체제붕괴 순위의 비교	12
<표 2.2.3> RINU 지표 및 측정항목	18
<표 3.1> 브레진스키 지표에 준거한 위기지수 추이	23
<표 3.2.1> RINU 지표에 준거한 분야별·지표별 위기지수 추이 ...	27
<표 3.2.2> 각 집단별 위기지수 추이 비교	28
<표 4.1.1> 공식이념의 기능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위기 지수 ..	32
<표 4.1.2> 공식이념의 기능 [집단주의 명제] 위기지수	36
<표 4.1.3> 공식이념의 기능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위기 지수 ..	39
<표 4.1.4> 공식이념의 기능 [김정일지도자론 명제] 위기지수 ...	41
<표 4.1.5> 공식이념의 기능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위기지수	44
<표 4.2.1>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 위기지수 ..	48
<표 4.2.2> 미래에 대한 비전 [실질적 대가] 위기지수	51
<표 4.3.1>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위기지수	54
<표 4.3.2>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의 현실 성] 위기지수	57
<표 5.1.1> 엘리트의 사기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 위기 지수	61

<표 5.1.2> 엘리트의 사기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위기 지수	64
<표 5.2.1> 엘리트 갈등 [집단적 갈등 유무] 위기지수	68
<표 5.2.2> 엘리트 갈등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위기지수 ..	70
<표 5.2.3> 엘리트 갈등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위기지수 ..	74
<표 5.3.1> 관료기구의 기능 [상부지침의 침투력] 위기지수	78
<표 5.3.2> 관료기구의 기능 [하위조직의 자의성] 위기지수	80
<표 6.1.1> 사적경제영역 [사적경제영역의 비중] 위기지수 ..	84
<표 6.2.1> 생활수준 [식생활] 위기지수	88
<표 6.2.2> 생활수준 [생필품 및 주거지] 위기지수	91
<표 6.2.3> 북한의 GNP 추이	93
<표 6.3.1> 북한의 대외무역	98
<표 6.3.2> 북한의 외채	98
<표 7.1.1>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위기지수	102
<표 7.1.2>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위기지수 ...	105
<표 7.1.3> 사회통제 [이동] 위기지수	109
<표 7.2.1> 정치적 반대 [불만표출] 위기지수	114
<표 7.2.2> 정치적 반대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위기지수	117
<표 7.2.3> 정치적 반대 [체제비판 행위] 위기지수	119
<표 7.3.1> 반문화의 형성 [청소년 문화] 위기지수	123
<표 7.3.2> 반문화의 형성 [종교활동] 위기지수	126
<표 7.3.3> 반문화의 형성 [전통적 집단의식] 위기지수	127
<표 8.1.1> 외부정보의 유입 [남한변화의 인지도] 위기지수 ..	131

<표 8.1.2> 외부정보의 유입 [중국변화의 인지도] 위기지수 ..	135
<표 8.2.1> 곡물 생산량 및 외부유입량	139
<표 8.2.2> 원유도입량	139

제 I 부 서 론

제1장 문제의 제기

최근 김정일의 공식승계 지연, 식량난, 고위층의 망명, 내부 통제 이완 등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이 논의의 결과는 크게 兩分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이상과 같은 변화들이 곧 붕괴의 조짐이라고 판단하면서 붕괴의 조건과 시점을 예측한다. 또 다른 부류의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것들을 붕괴의 징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상반된 판단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對北政策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상반된 관측이 대북한 정책에서의 혼선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일정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는 대북한 정책은 國際的 變數뿐만 아니라 北韓 變數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적 변수는 각 주변국의 비교적 뚜렷한 이익과 관례에 바탕하고 있는 까닭에 거시적 관점에서 대체로 예측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 변수는 자료와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예측이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북한 변수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통일 또는 대

북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혼선의 정도는 커지기 마련이다.

북한의 장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보와 자료의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최고위층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아직도 태부족이긴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 내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정되나마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解釋하는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북한의 장래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분석들은 단편적인 지표들에 의존하거나 극히 제한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이 붕괴 아니면 존속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성급한 결론을 도출해냄으로써 연구대상의 중대성과 複合性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危機水準과 耐久力을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는데 目的이 있다. 위기수준과 내구력은 권력엘리트(power elite), 체제(regime), 체계 혹은 국가(system or state) 등 세 가지의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體制”次元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체제 위기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5개 분야의 15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37개 측정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지난 10년(1986년~1995년)동안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전망하고자 한다.

제2장 분석의 틀 및 기법

1. 분석 수준으로서의 “체제”

북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내구력을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붕괴(collapse)라는 용어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정치적 변화를 기술하는데 사용되어온 이 용어는 무엇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의 영역 또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용어라고 하겠다. 예컨대, 붕괴라는 용어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김정일을 둘러싼 엘리트 집단의 교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체제의 총체적 해체를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내구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變化의 다양한 意味를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된다.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하면, 변화는 세 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권력엘리트, 체제, 총체로서의 체계가 그것이다.¹⁾

첫째,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변화로서

1) David Easton,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er*, Vol. 3 (1973), pp. 269-301.

대체로 체제 속성의 변화는 없다. 권력엘리트들은 선거나 지명과 같은 제도화된 방식에 의해서 혹은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서 교체될 수 있다. 변화의 수단이 어떤 것이든 간에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체제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체제의 변혁은 권력엘리트의 교체보다도 포괄적인 것으로서 체제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양식에 있어서 심대한 수정을 동반한다. 권력엘리트가 교체될 뿐만 아니라 체제의 구조가 변화된다. 대중동원과 집단적 폭력을 수반하는 고전적 의미의 혁명은 이같은 체제변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만이 체제변화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1980년대 중남미와 아시아에서의 민주화와 1980년대말 동구 社會主義 大變革은 체제변화의 좋은 예들이다.

셋째, 총체적 체계의 변화는 가끔 발생하는 변화로서 위의 두 가지 변화보다 包括的이다. 이 변화는 체계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분업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때²⁾ 혹은 느슨하게 연결된 두 체계의 구성원들이 보다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형성하기로 동의할 때 또는 한 체계가 다른 체계를

2) 이같은 변화의 이론적 전형은 혁명을 이데올로기가 다른 복수공동체(multiple communities) 사이의 경쟁 및 갈등으로 보았던 비교역사사회학자 킬리(Charles Tilly)의 이론일 것이다.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78).

무력으로 병합할 때 발생하게 된다. 달리 말해서, 체계의 總體의 變革이란 체계의 解體(disintegration) 또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인접체계들의 統合(integration)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같은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신생독립국가의 형성, 소련의 해체, 독일의 통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변화의 수준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命題가 있다.

첫째, 총체적 체계의 변화는 세 가지 수준의 변화 중에서 가장 高次的인 것으로서 권력엘리트의 교체, 체제변혁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체제변혁은 권력엘리트의 교체보다 고차적이다.

둘째, 세 가지 수준의 변화는 경험적인 세계에 있어서 서로 聯關되어 있다. 낮은 수준의 변화는 간혹 높은 수준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도상국가에서 군부의 집권이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으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기존 체제가 추구하던 가치와 목표들이 버려지고 권력엘리트와 일반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양식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계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권력엘리트가 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체제변혁이 총체적 체계의 해체 또는 새로운 통합된 체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마치 구소련으로부터 각 공화국이 독립해 나간 것이나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이 그러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본적으로 첫번째 명제가 두번째 명제

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체계의 위계질서가 체계접근에서 중요한 원리인 만큼,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가 높은 수준의 변화로 계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必須要件(requisite)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수요건이란 “높은 수준에서의 構造的 變形(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성숙이다. 달리 말해서, 높은 수준에서의 구조적 변형이 선행되지 않으면(그것이 아무리 점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가 높은 수준의 변화로 발전할 수 없다.³⁾

北韓의 내구력 또는 붕괴를 설명하는데 이같은 논의를 적용해 보자. 첫번째는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엘리트 집단의 축출에 한정될 것이다. 김정일의 기반이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의 유산 위에 놓여있는 만큼 그들 엘리트 集團의 축출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두번째는 노동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체사상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社會主義體制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변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체계의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매우 급격한 것이다. 세번째는 북한의 총체적 體系의 解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북한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Sung Chull Kim,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sponsored by Korean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 Research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Seoul, May 17-8, 1996), p. 86.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는 높은 수준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자신과 그와 관련된 요소들은 일정한 체계의 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인 바,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종말은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북한이라는 총체적 체계의 해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체제수준에서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의 축출과 체제의 변혁이 계기적으로 연결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위체계(suprasystem)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북한에서의 체제변혁이 체계의 총체적 해체로 이어질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체제” 차원의 위기수준과 내구력, 즉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지닌 속성 또는 구성요소들의 총체적 불안정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주요 요소이면서 체제보다 하위개념인 김정일을 위요한 권력엘리트 집단의 위기수준과 내구력에 대한 분석을 자동적으로 포괄하는 셈이다.

2. 지표의 설정

본 연구는 먼저 위기의 정도를 측정하는 指標(indicator)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지수를 산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등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추출하여 지표화하고 이 지표들을 다시 測定項目으로 세분화하며, 이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접근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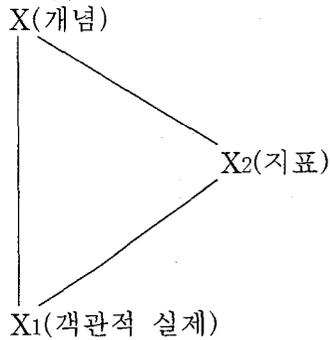
여기서 지표는 위기수준과 인과(cause-and-effect)관계에 놓여 있다기 보다는 측정하는 도구(tool)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지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기 보다는 위기의 정도를 반영하거나 또는 대표하는 것들이다.

다음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危機水準(X)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다양한 모습을 갖춘 客觀的 實際(X1)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개념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양상을 집약한 指標(X2)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⁴⁾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표와 같은 經驗的 道具가 없이 북한 체제의 위기수준과 내구력을 논하는 것은 지극히 임의적이며 개념의 추상성 그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게 될 뿐만 아

4) Kenneth D. Bailey, *Social Entropy Theor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pp. 26~7.

니라 향후 지속적인 분석을 위한 준거의 부재를 낳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전반적인 속성에 관한 지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지수화함으로써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함은 물론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2.1> 세 차원의 측정 모델



가. 브레진스키 지표의 장·단점

본 연구는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들의 위기수준을 측정
한 1987년의 브레진스키 지표에 의거해 최근 10년(1986년~
1995년)의 북한 위기수준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브레진스키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까지를 포
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RINU지표를 개발하여 북한의 위기
수준의 변화추이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브레진스키 지표를 참조한 이유를 밝히자면 1989
년의 사회주의 대변혁을 통해 그의 분석이 경험적으로 상당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브레진스키 지표의
長點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1〉 브레진스키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비교

(1987년 기준)

지 표	소련	중국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	베트남	쿠바	북한	양폴라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사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 상실	1	1	1	3	2	3	3	1	2	2	3	1	3	3	3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2	0	1	3	2	3	3	1	2	2	3	2	3	3	3
생활수준의 저하	2	0	1	3	2	2	3	1	3	3	3	2	3	3	3
공산당의 사기저하	2	0	0	3	2	2	3	1	2	1	1	0	1	3	1
종교활동의 증대	1	0	0	3	1	1	0	0	1	0	1	0	0	0	1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충돌	1	0	1	3	2	3	2	1	3	1	1	1	2	1	2
경제적 사유화의 증대	1	2	1	2	1	3	0	0	2	1	0	0	1	1	0
정치적 반대의 활성화	1	1	1	3	1	2	0	0	2	0	0	0	3	3	2
공개적인 정치적 다원화 요구	2	2	0	3	1	3	1	0	3	0	1	0	2	2	2
인권문제에 대한 수세적 대처	2	1	1	1	2	1	3	1	2	2	2	2	1	2	3
합 계	15	8	7	27	16	23	18	6	22	12	15	8	19	21	20

주1: 위기지수: 3(아주 옳다), 2(옳다), 1(부분적으로 옳다), 0(옳지 않다)

주2: 위기수준의 범주: 9이하 (위기 없음, 4개국), 10~19 (위기, 6개국), 20이상 (심각한 위기, 5개국)

출처: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89), p. 234.

<표 2.2.2> 브레진스키의 위기지수 순위와 실제 체제붕괴 순위의 비교

순위	브레진스키 위기지수 순위	체제붕괴 순위	비 고
1	폴란드(27)	에티오피아	1987년 새헌법제정
2	헝가리(23)	폴란드	1989년 4월 붕괴, 동년 9월 비공산당 주도의 연립정권 수립 1990년 1월 17일 공산당해체 1990년 11월 Lech Walesa 대통령 당선
3	유고(22)	헝가리	1989년 10월 붕괴, 다당제 허용 헌법 개정
4	모잠비크(21)	불가리아	1989년 12월 붕괴
5	에티오피아(20)	체코	1989년 12월 붕괴, 하벨대통령 당선 1993년 1월 체코와 슬로바키아 분리
6	앙골라(19)	루마니아	1989년 11월 차우세스쿠 처형 1990년 5월 헌법개정·다당제허용 총선
7	루마니아(18)	동독	1990년 7월 1일 동서독 화폐통합 1990년 10월 3일 통일기본조약 서명, 동·서독 정치통합
8	체코(16)	유고	1990년 1월 공산당 해체, 다당제 허용 1991년 6월 분쟁시작,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 독립선언 1992년 4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새 유고연방공화국 출범
9	소련(15)	소련	1991년 12월 CIS 창설
10	쿠바(15)	중국	사회주의 존속
11	베트남(12)	베트남	사회주의 존속
12	북한(8)	쿠바	사회주의 존속
13	중국(8)	북한	사회주의 존속
14	동독(7)	앙골라	사회주의 존속
15	불가리아(6)	모잠비크	사회주의 존속

주: () 안은 위기지수를 나타냄.

출처: Sung-Chul Yang, "Preface and Introduction," in Sung-Chul Yang, ed., *Democracy and Communism: Theory, Reality and the Future* (Seoul: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p. ix.

첫째, 브레진스키 지표는 최소한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신뢰성(reliability)을 보여주었다. <표 2.2.1>에서와 같이 1987년 당시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은 모두 “위기” 또는 “심각한 위기”의 범주 안에 들어 있었으며 실제로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체제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여기서 동독과 불가리아는 이같은 범주들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함으로써 브레진스키 지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구 변화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이 높은 위기지수를 나타냈으며 실제로 동구의 連鎖的 崩壞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브레진스키의 지표는 체제의 내구력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설명은 양성철 교수가 브레진스키의 위기지수 순위와 실제 체제붕괴 순위 사이를 비교한 <표 2.2.2>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브레진스키의 지표는 특히 당시 북한체제의 위기지수도 측정함으로써 시계열적 比較의 準據를 남겨주었다는 잇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물론 브레진스키 지표에 의한 현재의 북한 위기지수도 측정함으로써 1987년 이후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최근 급증하는 북한 붕괴의 가능성 논의에 즈음하여 브레진스키 지표에 의해 산출된 위기지수가 지니는 계량적 의미를 이미 봉

피한 사회주의체제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브레진스키의 지표들은 이상과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限界를 지니고 있다. 대체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레진스키의 지표들은 지나치게 內面的 世界 혹은 理念 分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가 선정한 10개의 지표들 중에서 사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 상실,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충돌, 공산당의 사기저하 등 4가지가 그같은 분석에 해당된다. 내면적 세계 또는 이념적 측면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가 한정된 수의 지표들 중에서 차지하는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즉, 이러한 분야의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측정할 수 있는 모사성 또는 복제성(replicability)의 정도가 낮다고 하겠다. 이 같은 문제점은 북한 분석에 있어서 면접 기법과 같은 독특한 기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더욱 증대될 수 밖에 없다.

둘째, 브레진스키 지표들 중에는 서구식 市民社會를 경험한 체제를 분석하기에는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체제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몇몇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반대의 활성화, 공개적인 정치적 다원화 요구, 종교생활의 증대 등이 그러한 종류의 지표들이다. 특히

정치적 반대와 정치적 다원화 지표들의 위기지수가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경우 체제붕괴 직전 매우 낮게 나타났음에도(0 또는 1)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들 나라들이 다른 동구권과 함께 체제 변혁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은 브레진스키 지표의 脆弱點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브레진스키 지표들의 논리적 타당성(validity)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민사회의 경험이 부재했던 체제까지를 고려한 一般화된 지표들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제, 브레진스키의 지표들은 周邊國과의 關係에서 드러나는 위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80년대 말 동구권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징후는 국제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밝혀질 수 있다. 국제환경과 관련된 지표로서 그는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人權問題에 대한 수세적 대처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인권문제 지표 하나만으로는 “어떤 체제이든 환경과의 적절한 상호작용 또는 환경에의 적응 속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는 체계론적 명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치 않다고 하겠다. 다른 사회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도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하여 활용하지 않는 고립된 체제를 고집하거나 또는 타의적으로 고립된 체제가 된다면 정체성을 극복할 수 없으며 결국 존속에 위협을 받게될 것이다. 따라서 체제의 위기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환경과의 작용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RINU 지표의 개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브레진스키 지표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등의 5분야에 걸쳐 각 3개씩의 지표를 설정하여 총 15개 RINU 指標를 정하고, 각 지표마다 1~5개의 測定項目을 설정하여 총 37개의 항목에 대한 위지지수를 측정하기로 하였다(<표 2.2.3> 참조).

본 연구는 지표 및 측정항목의 설정 과정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RINU 지표에서는 체제의 위지지수를 측정할 지표들이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라는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 고루 배분되도록 하였다. 각 분야마다 공히 3개씩의 지표를 설정하여 다소 인위적으로 배분한 느낌도 있지만, 이같은 배분은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均衡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RINU 지표는 브레진스키의 지표들을 전부 包含하되 지표 또는 측정항목 어떤 범주에 해당되는가를 신중히 고려하여 처리하였다. 예를들어, 브레진스키가 별개의 지표로 설정했던 종교활동은 문화적 측면에서 반문화(counterculture)의 형성이라는 지표 속에 포함될 하나의 측정항목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RINU 지표는 지표와 그것의 하위개념인 측정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위기수준과 관련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브레진스키의 지표들을 본 연구의 개념적 위계의 틀 속에 맞추어 넣었다.

셋째, RINU 지표는 브레진스키 지표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던 對外關係를 보완하였다.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입장에 外部情報의 유입과 安保資源의 확보 정도를 체제의 위기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지표는 북한처럼 오랫동안 고립정책을 펼쳐왔던 체제의 위기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외부정보의 유입은 체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불만과 비판의식을 증대시켜 준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과 같은 특수한 체제의 정보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식량 및 원유 등 안보자원의 확보 여부는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체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지표라고 하겠다.

〈표 2.2.3〉 RINU 지표 및 측정항목

분야	지표	측정항목
이 념	공식이념의 기능*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집단주의 명제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 실질적 대가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엘 리 트	엘리트의 사기*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엘리트 갈등	집단적 갈등 유무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관료기구의 기능	상부지침의 침투력 하위조직의 자의성
경 제	사적 경제영역*	사적 경제영역의 비중
	생활수준*	식생활, 생필품 및 주거지 GNP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무역, 외채
통 제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이동 탈북자 증감추이**
	정치적 반대	불만표출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체제비판 행위*
	반문화의 형성	청소년 문화, 종교활동* 전통적 집단 의식
대외 관계	외부정보의 유입	남한변화의 인지도 중국변화의 인지도
	안보자원의 확보**	곡물 생산량과 외부유입량 원유 도입량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주: * 표는 브레진스키의 10가지 지표에 상응하는 RINU 지표 또는 측정항목임.

** 표는 탈북자 면담(30개 문항)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로서 통계 또는 신뢰성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위기지수를 평가할 RINU 지표 또는 측정항목임.

3. 분석기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용된 기법은 面接이며, 이것이 적용될 수 없는 지표와 항목에 대해서는 統計資料를 활용하였다.

먼저 면접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본 연구는 RINU 지표와 측정항목들에 대한 위기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30명의 탈북자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⁵⁾ 위기지수 측정에 있어서 주로 면접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내면적인 意識世界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회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및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불가능했던 출신성분(토대)별, 직업별 등 사회집단별 비교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면접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질문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측정항목별 문항을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설문지로 사용하기 보다는 “면접 체크리스트”로 파악하여 가능한한 研究者가 면접 대상자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그 답에 근거하여 척도를 표기하였다.

5) 이 중에서 1명은 신뢰성 없는 대상으로 처리되어 실제로는 29명과의 면접결과가 통계처리 되었다.

둘째, 이 체크리스트의 대부분은 면접 대상자가 탈북자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편견을 탈피하고자 사회적 지위 및 연령이 비슷한 同僚集團의 의식 및 경험을 묻거나 면접 대상자의 소속직장에서의 소상한 상황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셋째, 각 문항에 대한 답의 4가지 척도(scale)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은 체제에 전혀 危害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임.

2는 체제에 위해하지 않고 대체로 안정적임

3은 체제에 위해하지만 정도가 낮음.

4는 체제에 대한 위해 정도가 매우 높음.

넷째, 면접시 각 문항마다 최근 10년 동안(1986~1995년)의 시기별 척도의 變化에 留意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대변혁(1989년)과 김일성 사망(1994년)을 기점으로 한 변화여부에 注意를 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식을 통해 얻어진 측정항목들의 위기지수를 平均하여 각 지표의 위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平均하여 총 위기지수 산출의 근거로 삼았다. 여기서의 위기지수는 시기별 변화 뿐만 아니라 출신성분별, 직업별, 거주지별, 교육수준별 등 각종 社會集團別로 산출되었다. 또한 본 면접은 위기지수를 산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지표별 및 측정항목별 내용

분석을 위해 면담내용을 충실히 청취하였다.⁶⁾

또한 본 연구는 면접을 통해 정보를 얻기 힘들거나 위기지수를 측정하기 힘든 지표 또는 측정항목에 대해서 기존의 統計資料 또는 分析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GNP의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안보자원의 확보 등 경제 부분에서는 관련통계를 활용하였으며, 탈북자 증가추이 및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 분석을 바탕으로 계량화하였다(<표 2.2.3>의 주 참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體制危機의 臨界點(critical limit)을 전체 위기지수 2.5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기지수 2.5는 위기지수 1~4의 중간 지수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다음과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위기지수 2.5는 안정과 위기를 대표한 지수간의 論理的인 드레쉬홀드(threshold)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지수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은 결코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둘째, 위기지수 2.5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經驗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기수준을 반영하는 신뢰성있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브레진스키의 계산방식에 의한다면 1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 직전의 소련(15) 또는 체코슬로바키아(16)가 이와 근사하였다.

6) 그러나 본문 중 측정항목에 대한 설명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출신성분별 및 직업별 평가에 집중하였다.

제Ⅱ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지표별 위기수준 평가

제3장 체제 위기수준 개관

1. 브레진스키 지표에 의한 평가

제2장 2절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브레진스키 지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브레진스키 지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1987년 당시의 위기지수와 현재의 위기지수를 比較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브레진스키는 개략적인 시계열적 비교의 준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잇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15개의 RINU 지표와 이를 세분화한 37개의 측정항목에 브레진스키가 이미 사용한 바 있는 10개의 지표를 포함시켰다(<표 2.2.1>와 <표 2.2.3> 참조).

다음의 <표 3.1>은 <표 2.2.3>에서 브레진스키 지표에 상당하는 것들을 추출하여 북한 체제의 지표별 및 총 위기지수를 산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식이념의 기능, 미래에 대한 비전,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엘리트의 사기, 사적 경제영역, 생활수준,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체제비판행위, 종교활동,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등이 해당된다.

〈표 3.1〉 브레진스키 지표에 준거한 위기지수 추이

지 표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공식이념의 기능	2.0	2.0	2.1	2.2	2.4	2.4	2.5	2.5	2.4	2.2
미래에의 비전	2.6	2.6	2.6	2.7	2.9	3.0	2.9	3.0	3.1	2.5
민족개념 정당화	1.8	1.8	1.8	1.9	2.1	2.2	2.2	2.3	2.3	1.9
엘리트 사기	2.4	2.4	2.5	2.5	2.6	2.6	2.6	2.6	2.6	2.5
사적 경제영역	2.6	2.7	2.7	2.7	3.0	3.0	3.1	3.1	3.2	2.8
생활수준	2.0	2.0	2.1	2.1	2.5	2.5	2.9	3.2	3.1	2.7
비관세력 존재 가능성	2.1	2.2	2.2	2.2	2.4	2.4	2.5	2.5	2.6	3.0
체제비판 행위	2.3	2.3	2.4	2.3	2.4	2.5	2.7	2.8	3.1	3.8
종교활동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인권문제 국제적 비난	2.0	2.0	3.0	3.0	3.0	3.0	3.0	3.0	4.0	4.0
전체 위기지수 I (RINU 방식)	2.0	2.1	2.2	2.2	2.4	2.4	2.5	2.6	2.7	2.6
전체 위기지수 II (브레진스키 방식)	10	11	12	12	14	14	15	16	17	16

주1: 전체 위기지수 I은 본 연구의 척도 1~4를 따라 平均을 낸 것이며, 전체 위기지수 II는 브레진스키의 척도 0~3을 바탕으로 合計를 낸 것임.

주2: 1995년의 위기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감소해서라기 보다는 1995년도에 대해 응답한 탈북자 중에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보는 고위계층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實質的 意味에서 1995년의 위기지수는 1994년을 능가한다고 판단됨.

주3: 브레진스키는 본 연구자와의 서신교환(1996년 2월 22일)을 통해 현 북한체제의 위기지수가 일견하여 17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음. 이같은 그의 분석은 탈북자 면담을 중심으로한 위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함.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지수는 점진적이긴 하지만 증가일로에 있음이 확실하다. 주목할 것은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다른 기간 보다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당시의 북한은 동구 社會主義圈의 崩壞에 따른 유형 및 무형의 부정적인 影響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89년에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제 준비를 위한 경제적 출혈과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 북한식 체제의 중요한 속성들에 상당한 정도의 훼손이 있었다.

브레진스키 지표와 척도에 준거해 現 북한 체제의 위기지수를 측정해 볼 때, 최소한 17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이같은 위기지수는 브레진스키의 저서 *Grand Failure* (『대실패』)에 나타난 붕괴 직전의 소련(15), 체코슬로바키아(16), 루마니아(18) 등과 근사한 것으로서 현 북한체제는 危機에 進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 위기가 곧바로 또는 자동적으로 체제붕괴와 연결될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내구력 전망을 다루는 제Ⅲ부에서 상론하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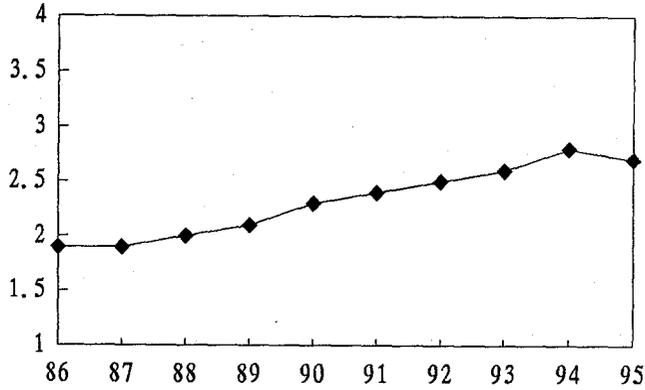
2. RINU 지표에 의한 평가

제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브레진스키 지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의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15개의 RINU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RINU 지표에 의거하여 측정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을 概觀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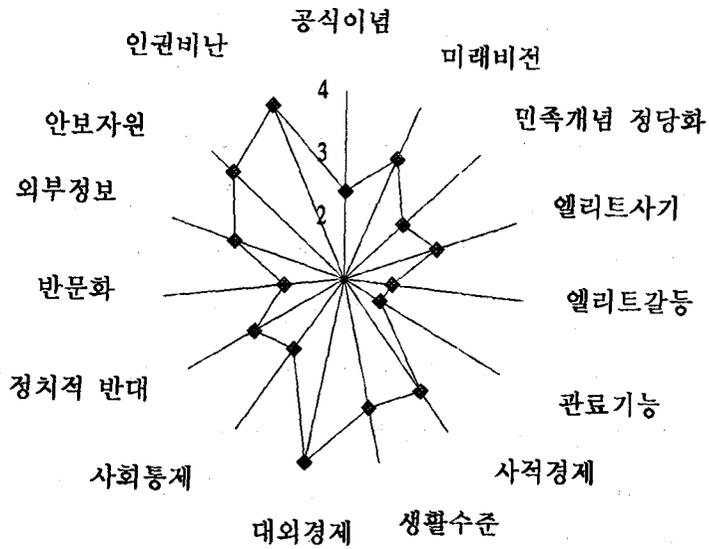
먼저 <그림 3.2.1>에서와 같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은 漸進적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의 증가 추세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최근 북한의 위기지수는 RINU 계산방식의 체제위기 임계점인 2.5(브레진스키 계산방식의 15에 해당)를 이미 통과하여 2.8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표 3.1>의 브레진스키 지표에 의한 위기수준 추이와 <그림 3.2.1>의 RINU 지표에 의한 체제전반의 위기수준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러면 지표별 위기지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그림 3.2.2>와 <표 3.2.1>가 이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북한은 경제 분야와 대외관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엘리트 분야와 통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표별로 보면, 북한 체제의 最大 弱點은 「대외경제관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안보자원의 확보」인 반면, 最大 強點은 「관료기구의 기능」, 「엘리트 갈등」, 「반문화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1> 전반적 위기지수 추이(RINU 지표)



<그림 3.2.2> RINU 지표별 위기지수 비교 (1994년 기준)



<표 3.2.1> RINU 지표에 준거한 분야별·지표별 위기지수 추이

분야별·지표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이 념	공식이념의 기능	2.0	2.0	2.1	2.2	2.4	2.4	2.5	2.5	2.4	2.2
	미래에의 비전	2.6	2.6	2.6	2.7	2.9	3.0	2.9	3.0	3.1	2.5
	민족개념 정당화	1.8	2.8	1.8	1.9	2.1	2.2	2.2	2.3	2.3	1.9
엘 리 트	엘리트 사기	2.4	2.4	2.5	2.5	2.6	2.6	2.6	2.6	2.6	2.5
	엘리트 갈등	1.6	1.6	1.7	1.7	1.7	1.7	1.7	1.8	1.8	1.7
	관료기구의 기능	1.3	1.3	1.4	1.4	1.6	1.6	1.6	1.6	1.7	2.0
경 제	사적 경제영역	2.6	2.7	2.7	2.7	3.0	3.0	3.1	3.1	3.2	2.8
	생활수준	2.0	2.0	2.1	2.1	2.5	2.5	2.9	3.2	3.1	2.7
	대외경제관계	1.0	1.5	1.5	2.5	2.5	3.0	3.0	3.5	4.0	4.0
통 제	사회통제	1.7	1.7	1.7	1.7	1.9	2.1	2.1	2.3	2.4	2.4
	정치적 반대	2.2	2.2	2.3	2.3	2.4	2.4	2.6	2.6	2.7	3.1
	반문화 형성	1.7	1.7	1.8	1.9	2.0	2.0	2.0	2.0	2.0	2.0
대 외 관 계	외부정보 유입	2.4	2.4	2.5	2.6	2.7	2.8	2.8	2.8	2.9	3.1
	안보자원 확보	1.5	1.0	1.0	1.0	1.5	1.5	2.5	3.0	3.5	4.0
	인권문제 비난	2.0	2.0	3.0	3.0	3.0	3.0	3.0	3.0	4.0	4.0
전체 위기지수 I (RINU 방식)		1.9	1.9	2.0	2.1	2.3	2.3	2.5	2.6	2.8	2.7
전체 위기지수 II (브레진스키 방식)		9	9	10	11	13	13	15	16	18	17

주: 1995년의 전체 및 일부 지표들의 위기지수가 전년도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감소해서라기 보다는 1995년도에 대해 응답한 탈북자 중에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보는 고위계층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임. 따라서 실질적 의미에서 1995년의 위기지수는 1994년을 능가한다고 판단됨.

〈표 3.2.2〉 각 집단별 위기지수 추이 비교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2	2.2	2.3	2.3	2.3	2.3	2.4	2.5	2.5	2.5
	기본군중	2.0	2.1	2.1	2.2	2.4	2.4	2.5	2.5	2.4	2.1
	동요계층	2.1	2.1	2.2	2.2	2.4	2.4	2.4	2.5	2.6	2.7
직 업 별	노동자	2.2	2.2	2.2	2.3	2.5	2.5	2.5	2.6	2.6	-
	농민	2.1	2.2	2.2	2.3	2.6	2.6	2.6	2.7	2.7	-
	인테리	2.2	2.2	2.2	2.2	2.3	2.3	2.3	2.3	2.3	-
	군관	2.0	2.0	2.1	2.2	2.4	2.4	2.4	2.4	2.3	2.3
	해외경험자	2.0	2.0	2.0	2.0	2.0	2.1	2.2	2.2	2.2	2.3
학 력 별	대학교	2.0	2.0	2.0	2.1	2.2	2.2	2.3	2.3	2.3	2.2
	전문학교	2.1	2.1	2.2	2.3	2.6	2.6	2.8	2.8	2.8	-
	고등중학교	2.2	2.2	2.3	2.3	2.4	2.5	2.5	2.6	2.6	2.7
거 주 지 별	평양	2.0	2.1	2.1	2.1	2.3	2.3	2.3	2.3	2.3	2.3
	평안남도	2.0	2.0	2.0	2.1	2.3	2.3	2.3	2.3	-	-
	평안북도	2.2	2.2	2.3	2.3	2.5	2.5	2.6	2.5	2.5	-
	함경남도	2.1	2.2	2.2	2.3	2.6	2.6	2.7	2.7	2.7	-
	함경북도	2.1	2.1	2.1	2.2	2.4	2.5	2.5	2.5	2.7	2.8
	자강도	2.0	2.0	2.0	2.1	2.5	2.5	2.5	2.7	-	-
	황해남도	2.4	2.5	2.6	2.5	2.5	2.5	2.5	2.5	2.5	-
	황해북도	2.1	2.1	2.1	2.1	2.2	2.3	2.3	2.3	2.3	-
강원도	2.2	2.2	2.3	2.4	2.5	2.5	2.5	2.5	-	-	
당 원	당원	2.1	2.1	2.2	2.2	2.4	2.4	2.5	2.5	2.4	2.3
	비당원	2.1	2.1	2.2	2.2	2.3	2.4	2.4	2.5	2.6	2.8

풀어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비공식
사적 경제영역이 확산되어 있고 경제침체로 인해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타격으

로 대외경제협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 대해 국제기구의 비난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러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매우 취약하고, 식량과 원유 등의 안보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도입이 예전처럼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나름대로 체제를 존속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당, 정, 군의 간부들의 사기가 약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엘리트는 대체로 높은 凝集力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료기구는 최고 지도부의 의도와 정책을 지시·이행하는 메카니즘으로서 기능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념 분야의 위기지수는 체제위기 임계점을 넘어섰거나 근접해 있어서, 당국의 집요한 주체사상 교양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더욱이 그 같은 사상교양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내외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未來를 가꿀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3.2.2>는 각 사회집단별로 위기지수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표는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통계를 활용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이 표에서 체제위기 임계점 2.5를 초과한 집단을 찾아보자면, 成分別로는 동요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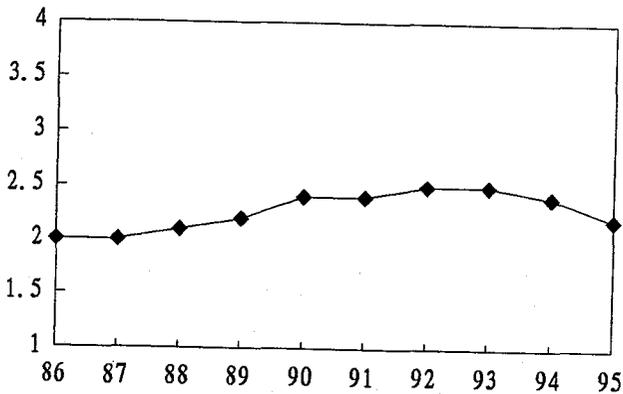
職業別로는 농민과 노동자, 學歷別로는 전문학교 졸업자와 고
 등중학교 졸업자, 居住地別로는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주민,
 당원 멤버십別로는 非黨員 등이었다. 달리말해, 이들 집단 특
 히 중첩되는 집단에 속한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체제
 는 위기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급격한 體制變革이 북한에서 발생한다면 主體가 누구일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
 외받는 집단인 동요계층, 노동자·농민, 전문학교·고등중학교
 졸업자, 비당원이 중요한 역할을 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급격한 변동이 어느 地域에서 발생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
 해서,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지역의 위기지수가 높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4장 이념분야 평가

1. 공식이념의 기능

<그림 4.1> 공식이념의 기능



본 지표는 북한 체제의 이념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 사상의 내면화 정도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집단주의 명제,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등 5가지의 측정항목이 들어있다.

지표의 위기지수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1990년 사이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19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주민들의 사상의식에 미치는 여파가 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2년에 위기지수가 체제위기

임계점 2.5를 넘어섰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에 포함된 5가지의 측정항목들 중에서 集團主義 命題의 위기지수는 1989년에 이미 3.0을 넘어서고 1994년에 3.4에 이름으로써, 이 원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표 4.1.1> 공식이념의 기능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위기 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0	2.0	2.0	2.0	2.5	2.5	2.5	2.5	2.5	2.5
	기본군중	2.0	2.0	2.1	2.2	2.3	2.3	2.5	2.6	2.7	2.0
	동요계층	2.2	2.2	2.2	2.3	2.8	2.8	2.8	2.9	2.7	1.0
직 업 별	노동자	2.3	2.3	2.3	2.4	2.8	2.8	3.0	3.2	3.1	-
	농민	3.0	3.0	3.0	3.0	3.0	3.0	3.5	3.5	3.5	-
	인텔리	2.0	2.0	2.0	2.0	2.3	2.3	2.3	2.3	1.5	-
	군관	1.6	1.6	2.0	2.0	2.0	2.0	2.0	2.0	1.5	1.5
	해외경험자	2.0	2.0	2.0	2.0	2.3	2.3	2.3	2.3	2.3	2.3
측정항목 위기지수		2.2	2.2	2.2	2.3	2.6	2.6	2.7	2.8	2.6	2.0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주체사상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위기지수 變化推移를 보면, 198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가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1989년(2.3)과 1990년(2.6) 사이에 급증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 증가추세는 계속되었다. 이같은 추이는 당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목격한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은 그들의 日常生活을 구속하는 이념으로서 기능하는데 상당한 限界를 지닐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공식이념으로서 김일성 및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권력 엘리트가 자신의 지배를 正當化하고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최우선적 원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엘리트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이 주어진 공식이념을 내면적이고 실천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체제의 구성원들이 공식이념을 내면적이고 실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정도를 밝히는 작업은 체제의 危機水準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탈북자면담 결과, 북한 주민들은 형식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사회적 지위 유지(CJH, CSK)⁷⁾와 당국의 강한 통제(OMS)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내면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수용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을 受容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사상보다는 물질을 앞세우는 풍조의 확산(YW)과 내용의 난해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이해 부족(CJH, SBL, CDC)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의 내용 중에서 “자기운명의 주체는 자기자신이다”라는 주장을 選別的으로 受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OMS, PSC, KCH, KKW, KKI).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열악한 경제사정 및 조직의 억압과 통제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없음이 밝혀졌다.

<표 4.1.1.>에 의하면, 여러 직업집단 중 일상생활에서 주체사상의 구속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군관이고 구속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은 농민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들에게 주체사상이 難解하고 그들이 주체사상에 제약받지 않고 일상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직업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관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수혜집단일 뿐만 아니라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간주되어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이 어떤 직업집단보다도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면담자들의 요청에 따라 면담자 성명의 영문이니셜로 표기함.

출신성분별 위기지수를 보면, 동요계층, 기본군중, 핵심군중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성분이 나뉠수록 주체사상의 拘束力이 약하다는 점이다. 즉, 토대가 낮을수록 주체사상은 일상생활에서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 제약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핵심군중은 1990년을 기점으로 그리고 기본군중은 1992년을 기준으로 위기 임계점인 2.5를 능가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主軸을 이루는 이들 계층에서도 1990년도에 이르러서는 주체사상의 구속력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집단주의 명제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여기서는 사회주의 원리들 중에서 집단주의 명제가 얼마나 의미있게 주민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위기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86년에 이미 2.6을 기록하여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찌기 集團主義가 훼손되고 個人主義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경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고, 「공식이념의 기능」이라는 지표의 측정항목 중에서 가장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제 북한에서는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가 주민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1.2〉 공식이념의 기능 [집단주의 명제]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기본군중	2.5	2.6	2.7	2.9	3.1	3.1	3.2	3.4	3.5	3.0
	동요계층	2.7	2.9	3.0	3.0	3.3	3.4	3.5	3.5	3.5	4.0
직 업 별	노동자	3.0	3.0	3.0	3.2	3.4	3.4	3.5	3.7	3.6	-
	농민	2.0	2.5	3.0	3.5	4.0	4.0	4.0	4.0	4.0	-
	인텔리	2.3	2.6	2.6	3.0	3.3	3.3	3.3	3.3	3.0	-
	군관	2.6	3.0	3.3	3.3	3.3	3.3	3.3	3.3	3.5	3.5
	해외경험자	2.3	2.3	2.3	2.3	2.3	2.3	2.3	2.3	2.6	2.6
측정항목 위기지수		2.6	2.7	2.8	3.0	3.2	3.2	3.3	3.4	3.4	3.0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사회주의체제에서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다는 것은 체제의 공식이념에 대한 주민들의 意識的 이탈뿐만 아니라 實踐的 이탈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와의 면담 결과, 북한주민들의 집단주의 의식은 1960년대~1970년대에는 비교적 강한 편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HSI). 특히 1984년 합영법 제정 등 제한적인 개방조치의 도입과 함께 외화벌이사업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KKI).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은 점차 돈, 특히 外貨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YW, KKI).

그러나 집단주의 의식은 최근들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경제사정, 그 중에서도 식량 및 생필품사정의 악화이다. 配給體系의 弛緩으로 말미암아 당국이 개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한 탓으로 개인들은 생존을 위한 自救策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집단주의는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AYK). 둘째, 자본주의적 문물과 사고방식의 유입이다. 이것들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북송교포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YW),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를 계기로 확산되었다(JKH).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인주의에 대한 통제가 강할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社會的 公認을 받을 수 없는 바(PSC, KDH), 개인주의적 행동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KKI, LHY).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二重的인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4.1.2>에 의한다면, 1994년을 기준으로 하여 농민(4.0)과 노동자(3.6)에게 있어서 위기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에서 개인주의가 가장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테리(3.0)와 군관(3.5)도 꽤 높은 수준인 한편, 해외경험자(2.6)도 높기는 하지만 타 직업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농민이 가장 높은 이유는 텃밭이나 뜰밭 개간을 통해 사적 부문에 관여할 가능성이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협동농장과 텃밭의 생산성은 1:3이라고 하는 바, 이는 농민들이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출신성분별로 보면, 동요계층(3.5)과 기본군중(3.5)의 위기지수는 매우 높고, 핵심군중(2.5)마저도 위기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분이 나쁜 계층은 식량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생존을 위해 개인주의적 행동양식을 보이는 한편, 성분이 좋은 계층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병행하는 二重的인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다. 부자간 권력승계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은 북한주민들의 김일성·김정일 사이의 부자간 권력승계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지수의 정도를 보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부자간 권력승계에 대해 안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지수는 1990년대 초반 약간 增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공식이념의 기능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위기 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0	2.0	2.0	2.0	2.5	2.5	2.5	2.5	2.5	2.0
	기본군중	1.6	1.6	1.6	1.6	1.7	1.7	1.8	1.8	1.7	2.0
	동요계층	1.5	1.5	1.5	1.6	1.6	1.6	1.6	1.5	1.2	1.0
직 업 별	노동자	1.8	1.8	1.8	1.8	1.8	1.8	1.9	1.8	1.5	-
	농민	1.5	1.5	1.5	1.5	1.5	1.5	1.5	1.5	1.5	-
	인테리	1.3	1.3	1.3	1.3	1.3	1.3	1.3	1.3	1.5	-
	군관	1.3	1.3	1.3	1.6	1.6	1.6	1.6	1.6	1.0	1.0
	해외경험자	2.0	2.0	2.0	2.0	2.3	2.3	2.3	2.3	2.3	1.6
측정항목 위기지수		1.6	1.6	1.6	1.6	1.7	1.7	1.8	1.7	1.6	1.8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김정일은 1973년 이후 당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당권을 장악해왔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1991년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에는 국방위원장에 오르면서 북한 최고의 軍權을 쥐게 되었다. 이제 그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게 되는 것이 얼마만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체제

의 위기수준 또는 내구력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부자간 권력승계 문제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로는 첫째, 권력승계의 문제를 미리 해결했기 때문에 金日成 死後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HSI, CSK, OMS, YMC). 둘째, 이미 오랜 기간동안 김정일 권력승계 작업과 동시에 김정일에 대한 偶像化작업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부자간 승계를 비판의식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CSK, AYK, CDC, PSC, KCH, SMC, YW, KKI, LSO, OSR, LCK).

<표 4.1.3>에서 직업집단을 살펴보면 타 집단에 비해 해외경험자의 위기지수가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타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세습적 권력승계의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農民의 위기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安定性을 보이는 바, 이는 농민들이 권력승계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LSO).

출신성분별로 보면, 김정일이 체제생존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는 핵심군중이 다른 성분집단들에 비해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일단 핵심군중은 교육수준이 높고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批判的 能力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본군중과 동

요계층의 위기지수가 낮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순전히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군중과 동요계층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의 해에 위기지수가 다소 감소한 원인은 북한 당국이 승계문제를 先決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식을 불러 일으키면서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일치단결을 강조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라.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표 4.1.4> 공식이념의 기능 [김정일지도자론 명제]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기본군중	2.2	2.2	2.2	2.3	2.3	2.5	2.6	2.6	2.7	3.0
	동요계층	2.1	2.1	2.1	2.3	2.3	2.3	2.3	2.3	2.1	1.0
직 업 별	노 동 자	2.2	2.2	2.2	2.5	2.5	2.5	2.6	2.6	2.3	-
	농 민	2.5	2.5	2.5	2.5	2.5	2.5	2.5	2.5	2.5	-
	인 테 리	2.0	2.0	2.0	2.0	2.0	2.3	2.3	2.3	3.0	-
	군 관	1.6	1.6	1.6	1.6	1.6	1.6	1.6	1.6	1.5	1.5
	해외경험자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측정항목 위기지수		2.2	2.2	2.2	2.3	2.4	2.4	2.5	2.5	2.4	2.5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에서는 주민들이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위기지수는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에 대한 명제보다도 높았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위기 임계점을 1992년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띄는 바, 이는 김일성 사망으로 김정일 이외에 대안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期待感이 다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과 같이 장기간 唯一指導體制를 확립해온 체제에서는 주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체제유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충성도는 이른바 새로운 체제의 건설 단계에서 지도자에 대한 경외심에서 발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서 김일성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즉, 40여년간 김일성 일인통치의 사회주의체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투사”와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상징조작이 가능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敬畏心이 있었기 때문이다(YW).

김정일의 경우 이같은 지도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한 측정항목의 위기지수가 일반적인 기대보다도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시 대안적 지도자의 부재와 장기간의 김정일 우상화작업의 영향 또는 政治的 無關心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정일의 부도덕성(CSK, KKI), 경제적 실정(HSI, CSW, SBL, PSC, SMC, KKW, KKI, KCS, OSR), 간부중심의 정치(CSK) 등 否定的 側面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자적 자질을 최악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4>에 의하면, 직업집단별 위기지수에 있어서 군관을 제외하고 해외경험자, 인테리, 농민, 노동자 모두에서 위기 임계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관들의 위기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는 북한이 군부를 중시하는 체제이며 김정일 역시 최고사령관으로서 軍部の 位相強化를 의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신성분별로 보면, 동요계층보다 기본군중과 핵심군중의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군중은 위기지수가 2.2에서 3.0으로 증가하는 반면, 핵심군중은 2.5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핵심군중은 김정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일찌기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인지하는 한편 체제의 수혜계층으로서 반드시 그를 부정적으로만 파악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본군중은 김정일의 업무수행(performance)을 바탕으로 지도자적 자질을 판단하는 바, 북한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위기지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표 4.1.5> 공식이념의 기능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0	2.0	2.0	2.0	1.5	1.5	1.5	1.5	1.5	1.5
	기본군중	1.4	1.4	1.6	1.6	2.0	2.0	2.2	2.2	2.1	2.0
	동요계층	1.6	1.6	1.6	1.7	2.0	2.0	2.0	2.0	2.1	3.0
직 업 별	노동자	1.5	1.5	1.5	1.6	1.9	1.9	2.0	2.1	2.0	-
	농민	1.5	1.5	1.5	1.5	2.0	2.0	2.0	2.0	2.0	-
	인테리	1.6	1.6	2.0	2.0	2.3	2.3	2.3	2.3	2.5	-
	군관	1.6	1.6	2.0	2.3	2.6	2.6	2.6	2.6	2.5	2.5
	해외경험자	1.6	1.6	1.6	1.6	1.3	1.6	1.6	1.6	1.6	1.6
측정항목 위기지수		1.5	1.5	1.6	1.7	1.9	2.0	2.1	2.1	2.0	2.0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여기서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명제를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시기별 위기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바, 주민들이 대체로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해 肯定的인 생각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위기지수의 증감추이를 보면, 1980년대 말 이후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1994년에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9년의 사회주의권 붕괴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 다소 감소를 보인 이유는 金日成 死亡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을 중심으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안정성을 다소나마 체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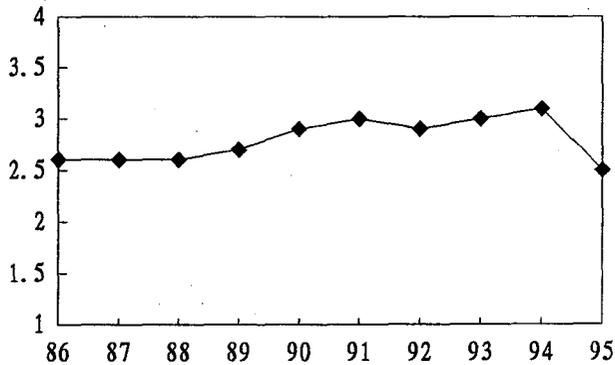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체제의 구성원들이 그 체제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비교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대상으로 자본주의체제 특히 남한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외부와의 단절과 사상교양으로 남한의 실상에 대한 情報를 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의 문제점을 서서히 인식하는 계층이 확산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주의의 평등(CSK, KCH), 당국으로부터의 혜택(HSI) 등과 같은 제도적 장점을 살리면서 중국과 같은 改革·開放을 실시(CJH, CSK, PSC, SMC, KCH, KDH, KKI, OSR,

YMC, LCK)하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1990년 이후 심각한 경제난(CSH)에도 불구하고, 이 측 정항목의 위기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1.5>에서 출신성분별로 살펴보면, 동요계층, 기본군중, 핵심군중의 순으로 성분이 나뉘수록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감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핵심군중은 1990년을 기점으로 위기지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바, 이는 수혜계층으로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건재한 이유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優越性에서 찾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2.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림 4.2〉 미래에 대한 비전



본 지표는 북한 주민들이 정서적 그리고 물질적 측면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갖고 살아 가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 대가 등 2가지의 측정항목이 들어 있다.

지표의 위기지수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체제위기 임계점 2.5를 이미 넘어섰으며 1991년에는 체제에 위한 수준인 3.0에 이르게 된다.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미래의 전도가 밝다는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懷疑的임을 알 수 있다.

가. 미래에 대한 희망

<표 4.2.1>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1.5	1.5	1.5	1.5	2.0	2.0	2.0	2.5	2.5	2.5
	기본군중	2.6	2.7	2.7	2.8	3.2	3.2	3.1	3.1	3.3	2.3
	동요계층	2.6	2.6	2.6	2.6	2.9	3.0	3.0	3.0	3.2	3.0
직 업 별	노동자	3.0	3.1	3.1	3.1	3.5	3.5	3.5	3.6	3.6	-
	농민	3.0	3.0	3.0	3.5	3.5	3.5	3.5	3.5	3.5	-
	인테리	2.3	2.3	2.3	2.3	3.0	3.0	3.0	3.0	3.5	-
	군관	2.3	2.3	2.3	2.3	2.3	2.3	2.3	2.3	2.5	2.5
	해외경험자	1.3	1.3	1.3	1.3	1.6	1.6	1.6	2.0	2.3	2.3
측정항목 위기지수		2.6	2.6	2.6	2.7	3.0	3.0	3.0	3.0	3.2	2.5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1990년 이후 위기지수가 3.0을 능가한 것을 보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즈음한 대내외적 여건의 침체를 목격하면서 대체로 미래에 대해 否定的 見解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가 사회주의권 붕괴원인 중의 하나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들고 있듯이, 특정 체제의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 체제의 위기 수준과 내구력을 분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⁸⁾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면담을 통해서 분석한 原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는 철저히 出身成分에 따라 개개인의 미래가 거의 결정되기 때문이다(YSC, KYK, KKW, KDH, LCK). 둘째, 경제난 심화로 인한 生活苦의 악화 때문이다(SBL, SMC, KCH, YMC). 셋째, 당국에 대한 不信이다. 북한 당국은 조금만 견디면 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의 내핍을 강요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는 지적이다(LHY). 따라서 이 측정항목의 위기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인 이유는 이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표 4.2.1>에 의한다면, 직업집단별 위기지수 정도는 노동자, 농민, 인테리, 군관, 해외경험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위기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는 구성원 대

8) Adam Przeworski, *Democracy and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167~171.

다수가 출신성분이 좋지 않고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신성분별 위기지수를 보면, 기본군중과 동요계층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단 동요계층보다 기본군중의 위기지수가 약간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생활에 대한 하락 격차를 과거와 비교할 경우, 기본군중에서 더 격차가 컸다는 점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동요계층은 과거부터 어려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핍생활에 대한 적응이 기본군중에 비해 잘 되어 있는 반면, 기본군중은 경제침체에 따른 생활상의 피해를 피부로 느꼈을지 모른다. 둘째는 출신성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기본군중이 핵심군중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동요계층이 기본군중으로上昇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나. 실질적 대가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측정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 대가를 받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항목의 위기지수는 앞의 측정항목보다는 약간 낮지만 전반적으로 위기 임계점을 1980년대 후반에 이미 넘어

<표 4.2.2> 미래에 대한 비전 [실질적 대가]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기본군중	2.5	2.5	2.5	2.6	3.0	3.0	3.0	3.0	3.1	2.3
	동요계층	2.6	2.6	2.7	2.7	2.9	2.9	2.9	3.0	3.2	4.0
직 업 별	노동자	2.9	2.9	2.9	2.9	3.2	3.2	3.2	3.3	3.3	-
	농민	3.0	3.0	3.0	4.0	4.0	4.0	4.0	4.0	4.0	-
	인테리	2.6	2.6	2.6	2.6	2.6	2.6	2.6	2.6	3.0	-
	군관	2.3	2.3	2.3	2.3	2.6	2.6	2.6	2.6	3.0	3.0
	해외경험자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측정항목 위기지수		2.6	2.6	2.6	2.7	2.9	2.9	2.9	2.9	3.0	2.5

섰으며 1990년을 계기로 3.0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이 일의 대가에 대해 悲觀的임을 알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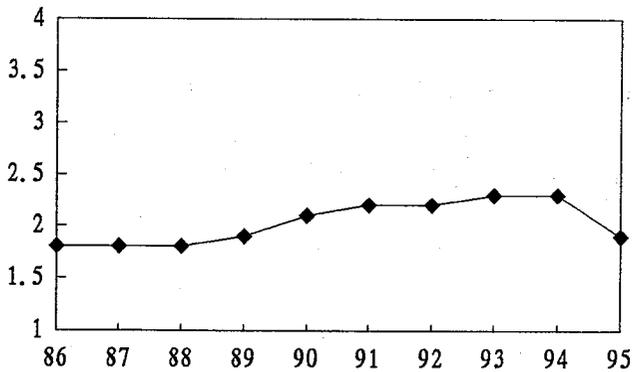
북한 체제가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대가가 있다해도 물질적인 대가 보다는 표창, 훈장, 칭호수여와 같은 도덕적 대가에 치중되어 있다(CJH, PSC). 이것 마저도 작업성과보다는 당에 대한 충

誠度가 평가기준으로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SBL, PSC).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한을 “공정치 못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PSC). 또한 “열심히 일해도 한달 월급이 신발 한 켤레를 사기도 어렵다”(SMC)라는 식으로 물질적 대가가 없는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표 4.2.2>에 의하면, 직업집단별 위기지수는 농민, 노동자, 인테리, 군관, 해외경험자 순이었다. 농민의 경우 열심히 일해도 입당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CDC), 해외경험자 대부분은 외화를 통해 어느 정도 대가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신성분별 위기지수는 동요계층, 기본군중, 핵심군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시 出身成分이 나쁠수록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그림 4.3〉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본 지표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적 원리에 민족개념을 어느 정도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몇몇 사회주의체제에서와 같이 만일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민족개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체제는 상당한 정당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는 바, “자주”라는 기치 아래 내세우는 미국 및 남한 타도 주장이 對內的 團합에 상당한 效果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의 위기지수가 서서히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제위기 임계점인 2.5에 미치지 못했음을 통해서 입증된다.

가.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표 4.3.1>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5	2.5	2.5	2.5	2.0	2.0	2.0	2.0	2.0	2.0
	기본군중	1.6	1.6	1.6	1.6	1.8	1.8	1.9	1.9	1.8	1.3
	동요계층	1.6	1.6	1.6	1.6	1.8	1.8	1.8	1.8	2.0	1.0
직 업 별	노동자	1.8	1.8	1.8	1.9	2.1	2.1	2.2	2.3	2.1	-
	농민	2.0	2.0	2.0	2.0	3.0	3.0	3.0	3.0	3.0	-
	인텔리	1.3	1.3	1.3	1.3	1.0	1.0	1.0	1.0	1.0	-
	군관	1.3	1.3	1.3	1.6	1.6	1.6	1.6	1.6	1.0	1.0
	해외경험자	2.3	2.3	2.3	2.3	2.0	2.0	2.0	2.0	2.0	2.0
측정항목 위기지수		1.7	1.7	1.7	1.7	1.9	1.9	1.9	1.9	1.9	1.5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이 측정항목은 주체사상에 나타나는 자주성 원칙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살펴보았다. 위기지수 정도는 최저 1.7에서 최고 1.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대체로 자주성 원칙에 대해 矜持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4가지 자주성 원칙을 개발하여 대내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오고 있다. 따라서 자주성 원칙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체제의 위기수준과 내구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주민들은 자주성 원칙들 중에서도 특히 “정치에서의 자주,”(JJK, PSC, LCK) “국방에서의 자위”(KCH, KKW, JKH, LCK)에 대한 긍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지감은 思想敎養을 통해 주입된다. “정치에서의 자주”에 대한 긍지감은 주로 남한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났다. “남한은 미군이 주둔해 있지만, 우리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JJK)든가 “남한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반면, 우리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PSC)는 식이다. “국방에서의 자위”에 대해서는 걸프전 이후 “우리는 총 한방으로 섬 한개를 날릴 수 있다” 또는 “국방에서 자위를 지킬 수 있었으므로 예측경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矜持感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주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HSI)고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권 붕괴 여파를 최소화시키려 노력했다.

반면에, “경제에서의 자립” 원칙에 대해서는 부정적 측면이

강했다. 經濟難의 원인이 자주성에 기초한 지나친 폐쇄성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주성에 긍지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KDH), 심지어는 1990년대 들어와 중국 보따리 장수로부터 “북조선 거지”라는 말을 듣고 분개했으나 내심적으로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CDC).

<표 4.3.1>에서와 같이 직업집단별 위기지수는 농민, 노동자, 해외경험자, 군관, 인테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신성분별 위기지수는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의 순이었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핵심군중의 경우 1990년 이후 위기지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체제의 受惠集團인 핵심군중들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자주성 원칙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긍지감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앞의 측정항목이 자주성 원칙에 대한 정서적인(emotional) 느낌을 평가하는 항목이라면, 이 측정항목은 자주성이 현실생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측정항목의 위기지수는 앞의 측정항목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주민들은 자주성 원칙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표 4.3.2>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기본군중	1.8	1.8	1.8	1.9	2.3	2.3	2.5	2.5	2.5	2.3
	동요계층	2.0	2.0	2.0	2.0	2.3	2.5	2.6	2.7	3.2	3.0
직 업 별	노동자	2.0	2.0	2.0	2.1	2.7	2.8	3.0	3.2	3.1	-
	농민	2.0	2.0	2.0	2.0	3.0	3.0	3.0	3.0	3.0	-
	인테리	2.0	2.0	2.0	2.0	1.6	1.6	1.6	1.6	1.5	-
	군관	2.0	2.0	2.0	2.3	2.6	2.6	2.6	2.6	2.5	2.5
	해외경험자	1.6	1.6	1.6	1.6	1.6	2.0	2.3	2.3	2.3	2.3
측정항목 위기지수		1.9	1.9	1.9	2.0	2.3	2.4	2.6	2.6	2.7	2.3

공지감을 가지고 있으나 現實生活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있지 않음을 반영한다. 특히 1992년을 기점으로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선회한 이유는 經濟難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2년부터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탈북자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주로 경제난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HSI, CSK, AYK, OMS, JKH, SMC, YMC). 특히 면담자들은 경제난의 주요 원인을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치중한 결과에서 찾고 있다(OMS, HSI, CSK, YMC).

그러나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에 대한 위기지수가 앞의 측정항목과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당국이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지되는 원인을 자주성 원칙의 고수라는 점에서 찾으면서 사상교양을 강화한 결과일 것이다(CJH, KKI). 둘째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자주성 원칙의 現實性에 대한 판단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이다(YSC). 셋째는 “국방에서의 자위” 및 “정치에서의 자주” 원칙이 아직까지는 견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반드시 자주성 원칙의 고수에 순기능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경제난을 심화시켜 주민들의 生活苦를 가중시켰기 때문이다(CSK, L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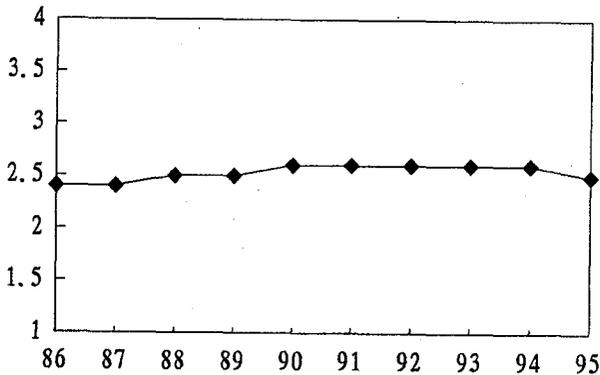
<표 4.3.2>에 의한다면, 여러 직업집단 중에서 1990년대 들어 농민, 노동자, 군관은 임계점을 통과한 반면, 인테리와 해외 경험자는 위기 임계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출신성분별 위기지수를 보면, 동요계층, 기본군중, 핵심군중의 순이며, 이는 출신성분이 나뉠수록 현실적으로 자주성 원칙의 수용정도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5장 엘리트분야 평가

1. 엘리트의 사기

<그림 5.1> 엘리트의 사기



본 지표는 북한 체제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또는 간부들의 사기를 지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과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등의 2가지 측정항목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지표의 위기지수는 1988년에 체제위기 임계점 2.5에 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간부들의 사기와 체제 정체감이 상당히 저하되었으며 그 상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것은 간부들의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긍지감보다 行爲로 드러난 원칙에의 충실성이란 측면에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은 엘리트의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을 평가한 것이다. 본 항목의 위기지수는 1986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매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수준이 1.6~1.8에 그친 것으로 보아 엘리트들은 대체로 높은 긍지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1980년대 말 이후의 위기지수가 이전 해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으로부터 붕괴에 이르는 변화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엘리트의 不安感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은 당·정·군 간부들에 의해서 지도·통제되는 획일적 사회라고 하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당간부들은 여타 조직을 총체적으로 지도·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상당한 긍지감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일군과 행정일군 사이에 자신들의 地位와 役割에 대한 긍지 정도가 다르며, 전자는 매우 긍지를 가지나 후자는 별로 그렇지 않다(LCS)든가, 당비서와 지배인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지배인이 지게 되고⁹⁾(LHY), 승진을 위

9)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일군이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후방총국 지하창고 건설시 설계도면대로 건설한 것을 양식국

해서는 정치부장 편에 줄을 선다(SMC)든가, 군대내 당, 보위부, 행정분야 순으로 권한을 행사한다(CSH)는 것 등의 예는 당간부들의 權力을 잘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부로 불리는 계층은 수혜자 또는 통제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긍지감을 느끼게 되며 그것도 직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JKH). 특기할 사항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忠誠心이 약해지고 있다(YMC)는 점이다.

<표 5.1.1>에서 직업집단별 위기지수를 보면, 노동자, 해외경험자, 인테리, 군관, 농민 順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당·정·군 간부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 情報라든가 이를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정·군 간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막연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간부들이 그들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간부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농민들의 위기지수가 그만큼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신성분별로 보면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순으로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위기지수에 대한 계층간의 편차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부장(대좌)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건설하도록 하였으나 양식국장(소장)이 설계도면을 무시한 정치부장을 걸고 넘어져 결국 정치부장이 좌천된 사례도 있었다(AYK).

나.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은 엘리트의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항목의 위기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980년대 후반에 위기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5.1.2> 엘리트의 사기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위기 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기본군중	3.1	3.2	3.3	3.4	3.6	3.6	3.6	3.6	3.6	3.0
	동요계층	3.0	3.1	3.2	3.3	3.5	3.5	3.5	3.6	3.5	4.0
직 업 별	노동자	3.2	3.3	3.5	3.6	3.7	3.7	3.7	3.8	3.6	-
	농민	4.0	4.0	4.0	4.0	4.0	4.0	4.0	4.0	4.0	-
	인테리	3.6	3.6	3.6	3.6	4.0	4.0	4.0	4.0	4.0	-
	군관	2.6	2.6	2.6	2.6	3.3	3.3	3.3	3.3	3.0	3.0
	해외경험자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측정항목 위기지수		3.1	3.2	3.3	3.4	3.5	3.5	3.5	3.6	3.5	3.1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에서 간부들의 不正·腐敗는 만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지휘관들이 오히려 하전사들을 시켜 출어하는 어부들에게 뇌물을 받도록 하며(CSH), 외화벌이, 당기관, 사법검찰, 사회안전부 순으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른다(LJK). 따라서 “큰 도둑은 간부들속에 있다”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간부층의 부정·부패는 1989년경부터 노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이 높을수록 물건보다 돈, 특히 달러를 원한다(KCS). 농민들의 불법적인 행위란 뺨기밭을 일구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다. 반면 간부들은 자기 직책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의 생산물을 횡령하여 상급기관에 뇌물로 바쳐 농민들의 원성을 사게 된다(LSO). 주민들은 부정·부패의 근원이 간부들이며, 직위가 높을수록 부정·부패의 량과 質이 높아진다고 본다(CSK, Y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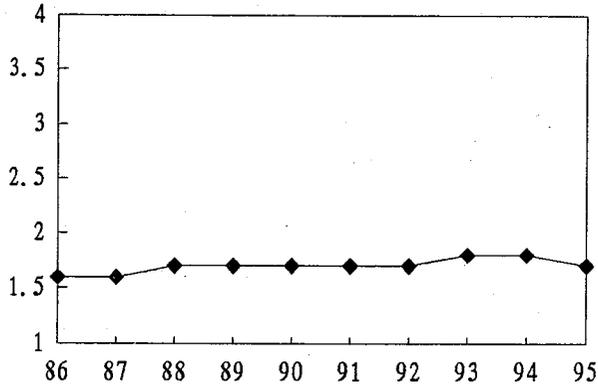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부패의 주역은 幹部이다. 둘째,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부패의 정도가 크다. 셋째, 당, 보위부, 안전부 등 勢力이 큰 기관의 간부일수록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 넷째, 간부들의 부정·부패 구조는 상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간부들의 부정·부

패는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인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섯째,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특히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이다. 따라서 개방정책으로 外部와의 接觸이 심화될수록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보다 확산될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집단별로는 농민과 인텔리, 그리고 출신성분별로는 동요·기본계층의 위기지수가 상대적으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 집단이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엘리트 갈등

<그림 5.2> 엘리트 갈등



본 지표는 엘리트 또는 간부층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집단적 갈등유무,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등 3가지의 측정항목이 들어있다.

지표의 위기지수는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1.8에 그침으로서 엘리트의 凝集性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지수를 놓고 볼 때, 엘리트층에서 제도를 중심으로 갈등이 약간 표출되지만 2.0 이하로서 아직 체제 안정을 해칠 정도는 아니며, 연고에 바탕을 둔 집단화 가능성도 2.1 이하로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는 종파주의를 철저히 거부하는 북한 특유의 유일적 지배체제의 強點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집단적 갈등유무

〈표 5.2.1〉 엘리트 갈등 [집단적 갈등 유무]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1.5	1.5	1.5	1.5	2.0	2.0	2.0	2.0	2.0	2.0
	기본군중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동요계층	1.1	1.1	1.2	1.2	1.2	1.2	1.2	1.2	1.2	1.0
직 업 별	노동자	1.0	1.0	1.1	1.1	1.1	1.1	1.1	1.2	1.3	-
	농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인텔리	1.0	1.0	1.0	1.0	1.0	1.0	1.0	1.0	1.0	-
	군관	1.3	1.3	1.3	1.3	1.3	1.3	1.3	1.3	1.0	1.0
	해외경험자	1.3	1.3	1.3	1.3	1.6	1.6	1.6	1.6	1.6	1.6
추정항목 위기지수		1.1	1.1	1.1	1.1	1.2	1.2	1.2	1.2	1.2	1.3

〈시기별 변화에 대한 해석〉

본 추정항목은 간부들 사이에서 집단적 차원의 갈등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항목의 위기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 집단적 갈등은 거의 무시할 정도임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위기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1.1-1.3)되기는 하였지만 그 폭은 극히 작다. 이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가 간부들 사이에서 집단적 갈등

이 야기될 정도로 느슨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에는 개인간, 부처간, 조직간의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지휘관과 정치장교 사이의 알력은 뿌리 깊은 것으로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대체로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에 그치며(CJH), 이것도 단지 個人 次元의 것이지 집단화된 것은 아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에 의해 일일 및 주 당생활총화에 충실하게 참여시켜 집단적 행위가 있을 경우 철저히 비판받게 함으로써 집단적 갈등을 통제하기 때문이다(AYK).

<표 5.2.1>에서와 같이 직업집단별로 보면 해외경험자, 그리고 성분별로 보면 핵심군중의 위기지수가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큰 差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은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를 평가하였다. 이 항목의 위기지수는 이전 항목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利害葛藤은 최근 사회주의의 침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제도간 이해 갈등은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5.2.2> 엘리트 갈등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1.5	1.5	1.5	1.5	1.5	1.5	2.0	2.0	2.0	2.0
	기본군중	2.0	2.0	2.0	2.0	2.1	2.1	2.0	2.0	1.9	1.3
	동요계층	2.0	2.0	2.0	2.0	2.0	2.0	2.0	2.0	2.2	4.0
직 업 별	노동자	2.0	2.0	2.0	2.0	2.0	2.0	2.0	2.1	2.1	-
	농민	3.0	3.0	3.0	3.0	3.0	3.0	3.0	3.0	3.0	-
	인텔리	1.3	1.3	1.3	1.3	1.3	1.3	1.3	1.3	1.0	-
	군관	2.6	2.6	2.6	2.6	2.6	2.6	2.6	2.6	2.5	2.5
	해외경험자	1.3	1.3	1.3	1.3	1.3	1.3	1.6	1.6	1.6	1.6
측정항목 위기지수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에서 제도간 갈등 유무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제도간 갈등을 부정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제도간의 갈등을 否定하는 면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黨의 영도가 絕對적이기 때문에 제도들 사이의 이해 갈등이 거의 없다(CJH)든가 철저하게 당비서 중심체제(특히 인사권에서)로 되어 있어서 제도간 갈등은 거의 없다(KCH)는 내용이다. 통상 존재하는 당과 행정간의 갈등은 무시될 정도이다. 왜냐하면 공장의 경우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지배인이 약간의 권리를 내세울 수는 있으나 대학교의 경우 그러한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권한은 무력하다(YW). 북한의 모든 조직은 당기관에 거의 복종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생산이 없는 행정기관의 경우 당기관이 절대 우세하다(KKI). 이같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에서 당조직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영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당 이외의 조직이 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표출이 지극히 制限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도간의 갈등을 認定하는 면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교부와 타 기관과의 이해 갈등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93년초 外交部는 人民武力부와 갈등을 겪었다. 화학무기 협

정(Cheical Weapons Convention)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부는 전술적 가입을 주장한 반면, 무력부는 가입 불가를 주장하였다. 결국 외교부가 김정일에게 전술적 가입의 타당성에 대해 직보하고 난 후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이 보고의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혁명화 과정을 겪은 후 복귀하였다(HSI).

군대내에서는 보위부와 지휘관, 정치군관과 지휘관 사이의 갈등은 끊임없이 表出되고 있다. 예를 들어, 후방총국 지하창고 건축시 설계도면 대로 건설할 것을 양식부 정치부장(대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건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식국장(소장)이 설계도면을 무시한 정치부장을 걸고 넘어져 결국 정치부장이 좌천된 사례가 있었다(AYK). 군대에서는 당, 보위부, 행정(지휘)분야의 순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바, 행정(지휘)분야의 군관 권한이 매우 약하다. 이로 인한 지휘관들의 權威失墜는 하전사들에 대한 관리능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는 부대내 下 剋上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CSH). 군행정(참모부)은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탈영에 관심이 적은 반면 정치부, 보위부, 청년부는 사상교양과 관련 되기 때문에 탈영에 매우 민감하다(LYS).

업무란 대부분 경제 ‘투쟁’이기 때문에 보위부와 외화벌이사 업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보위부 승인이 있어야 벌이대상자를 접촉할 수 있어서 절차상 그것을 회피한 경우 보위부가 이

를 문제 삼음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LJK). 양정사업소에 서는 네가지 기관이 임의적 권위를 행사한다. 당비서, 지배인, 보위부원, 안전원, 보위대장(공장 무장경비 총책)이다. 안전원이 지배인에게 사료를 요청하여 동의를 받게 되더라도 보위대장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위대장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서 마찰이 빚어지게 된다(YSC).

이상에서 제도간 갈등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당과 여타 조직들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어도 黨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당일군에 대한 행정일군의 불만은 내재화되고 제한된 수준에서만 표출될 뿐이다. 당의 권위가 실추될 정도로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될 경우 제도간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표 5.2.2>에서와 같이 농민과 군관의 위기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농민집단과 군대내에서 黨의 專橫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간의 갈등 위기지수가 전반적으로 2.0이하 수준에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것만으로 체제가 위협받을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표 5.2.3〉 엘리트 갈등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기본군중	2.0	2.0	2.0	2.0	2.2	2.2	2.1	2.1	2.2	1.6
	동요계층	1.8	1.8	1.8	1.8	2.0	2.0	2.0	2.1	2.0	1.0
직 업 별	노동자	1.8	1.8	1.9	1.9	2.0	2.0	1.8	2.0	2.1	-
	농민	3.0	3.0	3.0	3.0	4.0	4.0	4.0	4.0	4.0	-
	인테리	1.6	1.6	1.6	1.6	1.6	1.6	2.0	2.0	1.5	-
	군관	1.6	1.6	1.6	1.6	1.6	1.6	1.6	1.6	1.0	1.0
	해외경험자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측정항목 위기지수		1.9	1.9	2.0	2.0	2.1	2.1	2.1	2.2	2.1	1.8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에서는 간부들 사이에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이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것의 위기지수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나 경제침체와 같은 변화에 민감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연고별 집단화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사적으로 두명 이상의 모임이 반복되면 처벌을 받는다든가(CJH)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에 따라 학연, 지연, 혈연 등은 철저히 부정된다든가(CSK), 혹은 동향사람은 동일 중대내 배치를 금지하고 연고지 근무는 원칙적으로 禁止한다(AYK).

그러나 북한에서도 여타 개도국들이 경험해 온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수혜·후원관계의 폐해를 어느 정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연고가 업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언한다(CSW). 또한 지배인이 직장장을, 그리고 당비서는 세포비서를 자기사람(친척, 지역, 동기)으로 充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YSC). 따라서 연줄이 없으면 처세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간부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수혜·후원관계가 친인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LYS), 특히 학교 추천, 입당, 직장배치와 관계하여 이런 힘이 작용하게 된다(PSC). 이 같은 경향은 농촌이 도시보다 더 심하다. 친인척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출신학교이다(L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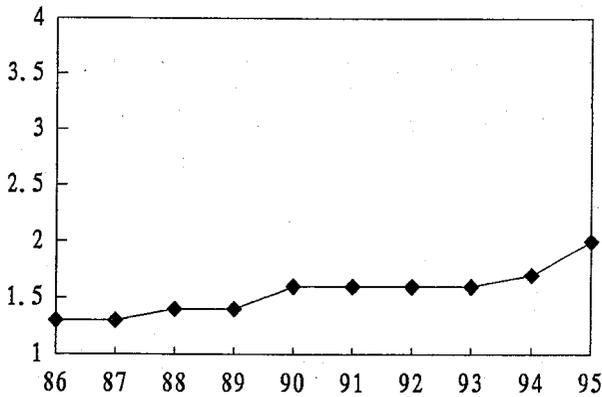
이러한 연고별 집단주의는 1990년대 들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외부세계의 情報流入이 확대됨에 따라 약간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이한 기관에 속한 사람들끼리 연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친인척의 경우 이를 통한 수혜·후원관계를 형성한다(OMS) 든가 연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경제가 침체되고 외부세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욕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KKW)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고질적인 지역갈등 때문에 1992년 “함흥출신은 군관학교 선발에서 제외하라”는 김정일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는 것이다(LCK).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에서는 연고별 집단화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표 5.2.3>에서와 같이 연고별 집단화에 대한 위기지수가 농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농촌에서 연고별 집단화 폐해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핵심군중이 동요 및 기본계층 보다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군관의 위기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대에서는 여타 집단에 비해 연고별 집단화가 상당히 엄중하게 統制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관료기구의 기능

〈그림 5.3〉 관료기구의 기능



본 지표는 최고 지도자와 당의 노선 및 지침이 전달되는 메카니즘의 작동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상부 지침의 침투력과 하위조직의 자의성 등 2가지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의 위기지수는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기간을 거쳐 2.0 이하로서 15가지의 RINU지표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관료기구는 아직 安定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하위조직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변칙운용이 이루어지는 예도 있지만, 상부 지침의 浸透力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상부지침의 침투력

<표 5.3.1> 관료기구의 기능 [상부지침의 침투력]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1.5	1.5	1.5	1.5	2.0	2.0	2.0	2.0	2.0	2.0
	기본군중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동요계층	1.0	1.0	1.0	1.0	1.0	1.0	1.0	1.0	1.1	2.0
직 업 별	노동자	1.0	1.0	1.0	1.0	1.0	1.0	1.0	1.0	1.0	-
	농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인테리	1.0	1.0	1.0	1.0	1.0	1.0	1.0	1.0	1.0	-
	군관	1.3	1.3	1.3	1.3	1.3	1.3	1.3	1.3	1.5	1.5
	해외경험자	1.3	1.3	1.3	1.3	1.6	1.6	1.6	1.6	1.6	1.6
측정항목 위기지수		1.0	1.0	1.0	1.0	1.1	1.1	1.1	1.1	1.1	1.5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당의 지시나 노선이 하위 실무단계까지 어느 정도 침투되는가를 측정하였다. 이 항목의 위기지수는 1990년대에 들어서 증가하였지만, 증가 폭이 별로 크지 않은데다가 2.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상부지침의 浸透力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은 군대와 유사한 일사분란한 상명하달의 지휘체계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및 당의 지시가 실무조직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평가는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軍 幹部出身들의 評價는 “방침관철”과 “업무수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상부의 지시는 잘 받아들여진다(HSI). 더욱이 “교시말씀”은 반복 체크되는데 연대급 이상에서는 “교시말씀” 집행기록참모(상좌~소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YK).

<표 5.3.1>에서와 같이 직업집단별로 보면 군관과 해외경험자, 그리고 출신성분별로 보면 핵심군중의 위기지수가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났다.

나. 하부조직의 자의성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에서는 하위 실무단계의 조직들이 생산 또는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규칙을 어느 정도 변칙 운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항목의 위기지수는 완만한 증가(1.6~2.5)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보다 큰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

함과 동시에 하위 조직들이 보다 自意的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擴散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2> 관료기구의 기능 [하위조직의 자의성]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5	2.5	2.5	2.5	2.5	2.5	3.0	3.0	3.0	3.0
	기본군중	1.4	1.4	1.6	1.6	2.0	2.0	2.1	2.1	2.1	2.3
	동요계층	1.7	1.7	1.8	1.8	2.2	2.2	2.2	2.1	2.5	2.0
직 업 별	노동자	1.6	1.6	1.7	1.8	2.0	2.0	2.2	2.1	2.1	-
	농민	1.5	1.5	1.5	1.5	2.5	2.5	2.5	2.5	2.5	-
	인테리	1.0	1.0	1.0	1.0	1.0	1.0	1.0	1.0	1.0	-
	군관	1.6	1.6	2.0	2.0	2.3	2.3	2.3	2.3	2.5	2.5
	해외경험자	2.0	2.0	2.0	2.0	2.0	2.0	2.3	2.3	2.3	2.3
측정항목 위기지수		1.6	1.6	1.7	1.7	2.1	2.1	2.2	2.2	2.3	2.5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칙이 중시되는 한편 하위조직의 자의성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북한에서 처세와 관련하여 “죽어도 원칙은 메고 죽어라”라는 명제가 있다(LYS)는 사실은 원칙관철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變則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면, 군인들은 8시간의 軍事訓練 중 3시간 정도가 부식을 생산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CJH). 또한 지역 또는 집단에 따라 변칙운용의 정도도 다르다. 두만강 지역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 또는 당 지침을 더욱 잘 해설하고 교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의 이행되지 않는다. 군인들은 자주 자체 부식을 해결하기 위한 농사에 투입되기 때문에 훈련시간을 상급기관에 허위보고한 후, 검열이 있을 경우에만 이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CSH).

생산현장에서도 작업반도급제나 개인도급제 등이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단, 당에 소속된 물자관리에 있어서는 원칙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LCS). 농업에 있어서도 지침은 물론 교시까지도 여건 부족으로 형식적으로만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993년 김일성이 일체의 운반수단(소달구지, 등짐, 썰매 등)을 이용하여 흙갈이할 것을 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흙갈이는 이틀 정도만 시행되기도 하였다(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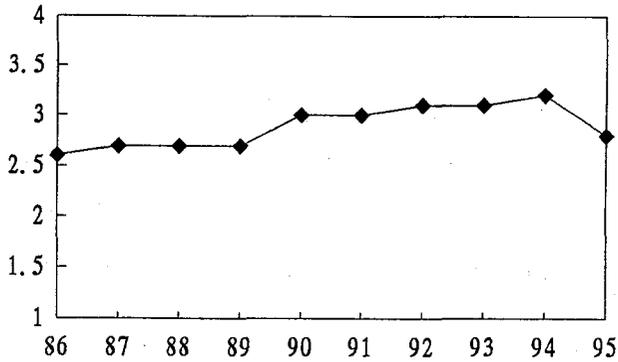
이러한 변칙운용은 특히 1990년대 들어 심해졌다. 생활총화는 점점 형식적이 되었고 허위보고가 많아졌으며, 주민들은 개인 장사를 많이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해 이러한 행위들을 감시하는 한편, 주민면담과 서류자료 검사를 통해 각급 기관의 변칙운용을 차단하고자 하였다(KKW).

<표 5.3.2>에서와 같이, 직업집단별로 보면 인테리 집단의 위기지수가 가장 낮은 바 이는 변칙운용에 따른 대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 보면 핵심군중의 위기지수가 상당히 높게(2.5~3.0)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기본군중 및 동요계층의 위기지수는 이보다 낮게(1.4~2.5) 나타났다. 이것은 수혜계층인 핵심군중 사이에서 自意的인 변칙운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제6장 경제분야 평가

1. 사적 경제영역

<그림 6.1> 사적 경제영역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지표는 중앙집중식 사회주의경제의 공식부분에서 벗어난 비합법적인 사적 경제영역의 비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6.1>에서와 같이 북한경제에 있어서 사적영역의 비중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기간을 통해 위기지수가 2.6~3.2를 기록함으로써 그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사적영역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3.0을 넘어서고

<표 6.1.1> 사적 경제영역 [사적 경제영역의 비중]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3.0	3.0	3.0	3.0	3.0	3.0	3.0	3.0	3.0	3.5
	기본군중	2.6	2.6	2.6	2.6	3.0	3.0	3.0	3.0	2.9	2.0
	동요계층	2.8	2.9	3.0	3.0	3.1	3.2	3.2	3.4	3.8	4.0
직 업 별	노동자	2.7	2.7	2.8	2.9	3.1	3.1	3.2	3.5	3.5	-
	농민	2.0	2.0	2.0	2.0	3.0	3.0	3.0	3.0	3.0	-
	인테리	4.0	4.0	4.0	4.0	4.0	4.0	4.0	4.0	4.0	-
	군관	2.0	2.3	2.3	2.3	2.6	3.0	3.0	3.0	2.5	2.5
	해외경험자	2.3	2.3	2.3	2.3	2.3	2.3	2.3	2.3	2.3	2.6
측정항목 위기지수		2.6	2.7	2.7	2.7	3.0	3.0	3.1	3.1	3.2	2.8

있는데, 이는 經濟沈滯로 인해 공식 배급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경제의 사적영역은 1986년~1995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KYK). 1980년대의 사적 경제영역은 주로 1984년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 추진과 1989년 “세계 사회주의 청년·학생 축전” 개최 등으로 확산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전반적인 경제난 속에서 식량 및 일용품 공급이 어

렵게 되자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自救策 次元에서 사적 경제 영역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CDC, OMS). 한편 경제난 심화에 따라 계층간의 위화감이 확산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희박해졌으며, 부정·부패 행위가 확산되었다는 사실 역시 사적 경제영역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YSC, CSH). 또한 북한 자체적으로 生必需品 供給이 어렵게 되자 북·중 국경을 통한 개인적 왕래와 공식적인 무역 및 밀무역이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HSI, LJK).

탈북자들은 출신성분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북한의 사적 경제 영역이 알려진 것 보다 더욱 廣範圍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성분별·직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6.1.1>에서 출신성분별로 살펴보면 1994년 기준 위기지수는 핵심계층 3.0, 기본계층 2.9, 동요계층 3.8로 비교적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 순종적이라 할 수 있는 기본군중의 평균치가 가장 낮았으며,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요계층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다. 핵심군중은 특권을 이용하여 기본군중보다 사적 경제영역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J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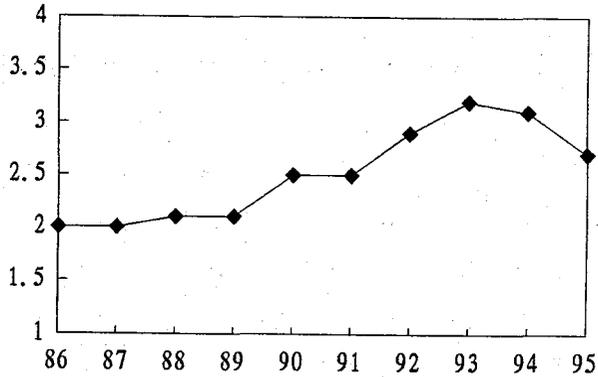
직업별로 보면 북한의 사적 경제영역이 크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19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테리(4.0), 노동자(3.5), 농민(3.0), 군관(2.5), 해외경험자(2.3)의

순서로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유시간이 비교적 많은 인테리가 사적 경제영역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 배급망을 통한 물자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외화상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군관과 해외경험자는 사적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JH, HSI).

결론적으로 이미 북한 경제에 있어서 사적 영역은 日常生活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문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현실적 경제생활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규범으로부터 상당히 離脫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활수준

〈그림 6.2〉 생활수준



본 지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식생활, 생필품 및 주거지, GNP 증감추이 등 3가지의 측정항목들이 들어 있다.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의 위기지수는 1990년에 체제위기 임계점 2.5를 넘어선 이후 급속히 높아져 최고 3.2를 기록하였다. 즉,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社會主義圈崩壞 이후 급속하게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생활수준의 악화는 특히 1990년 이래 지속된 GNP의 마이너스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식생활

<표 6.2.1> 생활수준 [식생활]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기본군중	2.3	2.3	2.3	2.3	2.4	2.5	2.6	2.6	2.7	2.0
	동요계층	2.5	2.5	2.7	2.9	3.1	3.1	3.1	3.1	3.0	3.0
직 업 별	노동자	2.8	2.8	3.0	3.0	3.0	3.0	3.3	3.2	2.8	-
	농민	2.0	2.0	2.0	2.0	2.0	2.0	2.0	2.0	2.0	-
	인테리	2.5	2.5	2.5	2.5	3.0	3.5	3.5	3.5	3.5	-
	군관	2.0	2.0	2.0	2.3	2.3	2.3	2.6	2.6	3.0	3.0
	해외경험자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측정항목 위기지수		2.4	2.4	2.5	2.5	2.7	2.7	2.8	2.8	2.7	2.1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이미 1988년에 체제위기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경제난이 더욱 심화된 1993년 이후 탈북자들이 평가한 食糧難의 정도는 미소하나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암거래 등을 통해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정

도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탈북자 대부분이 북한의 일반주민에 비해 행동이 민첩하고 생존능력이 앞선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1993년 이후에도 대부분의 일반주민이 느끼는 식량난은 더욱 惡化되었을 것이며, 성분, 세대원 구성, 거주지역에 따라 식량난의 정도가 상당히 현저한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주민의 식량부족 정도는 면접 대상자들이 평가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나, 그 동안 북한주민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 수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표 6.2.1>에서와 같이 식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 성분별로는 면접조사 대상기간 동안 위기지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요계층(2.9), 기본군중(2.4), 핵심군중(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철저하게 체제에 대한 忠誠心을 물질적 보상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계층간 경제생활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로 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노동자(3.0), 인테리(3.0), 군관(2.4), 농민(2.0), 해외생활경험자(1.7)로서, 해외경험자와 농민의 위기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노동자의

경우 직접 식량생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배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식적 食糧配給網의 와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KYK, LHY). 인테리의 경우 식량난 정도에 대한 상대적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났는 바(LCK), 이는 직업의 성격상 비합법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관의 경우 우선배급 대상에 포함된 까닭에 식량난에 대한 평가가 인테리보다는 덜 심각하게 나타났다(CJH). 반면에 농민의 경우 직접적인 생산자이므로 생존을 위한 食糧確保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해외생활자는 대체로 특권층의 자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이들은 외화보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낮은 평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생필품 및 주거지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생필품 등 주거지 공급상황에 대한 위기지수는 1986년 이전부터 위기 임계점에 도달하였고 지금까지도 緩慢하게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공업 및 군수산업 위주로 이루어진 북한의 경제구조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이나 주거지에 대한 평가는 항상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93년

이후 기간에 대한 위기지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식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존에 필수적인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인 생필품 공급상황은 惡化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2> 생활수준 [생필품 및 주거지]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5	2.5	2.5	2.0	2.0	2.0	2.0	2.0	2.0	2.0
	기본군중	2.7	2.7	2.7	2.7	2.7	2.7	2.6	2.6	2.7	1.6
	동요계층	2.7	2.7	2.9	2.9	3.0	3.0	3.1	3.1	3.0	3.0
직 업 별	노동자	3.1	3.1	3.2	3.2	3.3	3.3	3.3	3.2	2.8	-
	농민	3.0	3.0	3.0	3.0	3.0	3.0	3.0	3.0	3.0	-
	인테리	3.0	3.0	3.0	3.0	3.0	3.0	3.0	3.0	3.0	-
	군관	2.3	2.3	2.3	2.3	2.3	2.3	2.3	2.3	2.5	2.5
	해외경험자	2.0	2.0	2.0	1.6	1.6	1.6	1.6	1.6	1.6	1.6
측정항목 위기지수		2.7	2.7	2.8	2.8	2.8	2.8	2.8	2.8	2.7	2.0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생필품이나 주거지에 대한 위기지수 평균치를 성분별로 나누어 보면, <표 6.2.2>에서와 같이 동요계층, 기본군중, 핵심군중의 순으로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생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제에 대한 忠誠度에 근거하여 생필품이나 주거지의 배분이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생필품과 주거지에 대한 출신 직업별 평가는 노동자, 농민, 인테리, 군관, 해외경험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급상의 특별대우를 받는 군관과 의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혜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외경험자의 경우 생필품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여건이 좋은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생필품이나 주거지에 대한 위기지수는 대체로 3.0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경제난이 지속되고 외부정보 유입 등에 의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경우 위기지수는 극단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 GNP 증감추이

<북한 GNP에 대한 설명>

북한이 거시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원과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GNP는 추정방법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통계적 일치성이 떨어지며 평가오차가 클 수 있다는 결함이 있으나, 북한경제의 대체적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현존하는 자료중 가장 적합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의 生活水準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GNP규모보다는 1인당 GNP가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인구 관련 자료의 오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전체 GNP의 변화추이가 더욱 현실에 근접한 통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3> 북한의 GNP 추이 (단위: US 억달러, %)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GNP	151	174	194	206	211	231	229	211	205	212	223
경제성장률	2.7	2.1	3.3	3.0	2.4	-3.7	-5.2	-7.6	-4.3	-1.7	-4.5
GNP지수 (1985=100)	100.0	102.1	105.5	108.6	111.2	107.1	101.6	93.8	89.8	88.3	84.2
위기지수	-	1.0	1.0	1.0	1.0	2.0	2.0	3.0	4.0	4.0	4.0

주: 1. GNP는 명목GNP이며, 경제성장률은 실질성장률임.

2. GNP는 1990년까지는 통일원, 1991년 이후는 한국은행의 추정치임.

자료: 통일원, 「남북한 주요통계비교 199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1991」; 「남북한 경제지표 1992」; 「남북한 경제지표 1993」;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5년 북한 GNP추정결과」.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북한경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였으며, 1980년대에는 2~4%대의 低調한 經濟成長率을 기록하였다. 이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결함이 누적된 결과이며, 북한은 생필품, 에너지, 공업원자재, 투자재원, 기술 및 기술인력의 광범위한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누적된 체제결함에 더해 구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 대변혁으로 인해 이들로부터의 지원성 수출(공업원자재 및 기계설비)이 감소하고, 북한의 수출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1990년 이후 북한경제는 연속적인 負의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1991년 이후 구소련이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硬貨決濟를 요구했으며, 1992년 이후 중국 역시 支援性 交易를 축소하고 경화결제에 의한 교역을 요구함에 따라 원유 및 코크스탄과 곡물 등 북한경제의 생존에 필수적인 상품수입이 급감하였으며, 북한의 GNP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대외경제환경의 악화와 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이 상승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북한주민의 근로의욕 역시 감퇴했으며, 특히 냉해 및 수해,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따라 곡물생산이 급감하게 되자 1993년부터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기지수의 평가>

첫째, 전년도에 비해 실질 GNP가 증가한 경우의 위기지수는 1로 평가되었다. 이는 주민의 불만정도는 GNP추이의 시계열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비해 GNP가 증가했을 경우, 체제위기 지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GNP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1985년 보다 증가한 경우의 위기지수는 2로 평가되었다. 1984년~1985년의 기간은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8.3인민소비재증산운동과 독립채산제의 시행을 강조하는 등 경제체제의 構造的 問題點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며, 이 시기 이후 산업간의 불균형과 소비재 부족 등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므로 1985년도는 북한경제의 위기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GNP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하더라도 1985년에 비해 증가했을 경우, 위기지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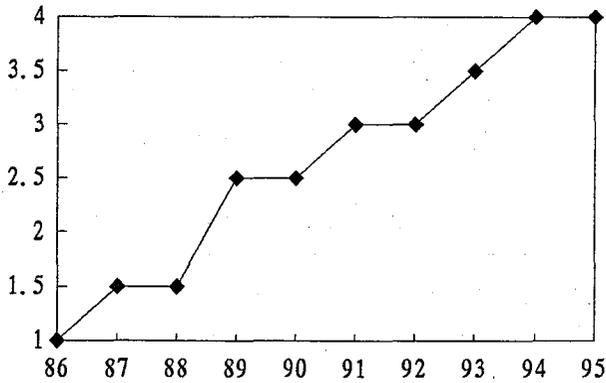
셋째, 북한 GNP가 1985년도 실질 GNP의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위기지수는 3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실질 GNP가 1985년도의 90~100% 수준일 경우, 生活水準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체제위기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해당연도 북한 GNP가 1985년도 실질 GNP의 90% 미만인 경우 위기지수는 4로서 가장 심각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이는 실질 GNP가 경제적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1985년도의 90%미만일 경우 10년전과 비교하여 주민생활 수준이 상당정도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체제위기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GNP 변화추이로 살펴 본 북한경제의 위기정도는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특히 1993년부터는 위기지수 4에 속할 정도로 주민 생활수준이 저하되어 체제 변혁 혹은 개혁 직전의 동구 사회주의권이나 중국 베트남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스로 경제성장 궤도에 재진입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북한경제는 이미 붕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비공식 경제행위의 묵인, 북·중간의 국경교역, 외화상점 거래 등 경제적 자구책과 정보유통체계 차단, 대남 적개심 고취, 사회 통제 등의 정치사회적 통제정책, 그리고 전통문화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활용하여 經濟難이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대외경제관계

<그림 6.3> 대외경제관계



본 지표는 무역과 외채를 측정항목으로 하고 있다. <그림 6.3>에서와 같이 위기지수 증가의 폭이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최고지수인 4.0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북한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지표는 북한 체제의 脆弱性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RINU 지표들 중의 하나이다.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자력갱생” 및 “주체경제”를 강조해 왔으나, 부존자원 및 경제규모, 기술수준 등의 측면에서 對外依

〈표 6.3.1〉 북한의 대외무역 (단위: US\$ 억달러)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수출입총액	31.0	35.7	41.5	52.4	48.0	46.4	27.2	26.6	26.4	21.1	20.5
증가율	-	15.2	16.2	26.3	-8.4	-3.3	-41.4	-2.2	-0.8	-20.1	-2.8
수출입지수 (1985=100)	100	115.2	133.9	169.1	154.9	149.8	87.5	85.5	84.8	67.0	65.2
위기지수	-	1.0	1.0	1.0	2.0	2.0	3.0	3.0	3.0	4.0	4.0

주: 수출입 총액은 경상가격 기준임.

자 료: 앞의 표와 같음.

〈표 6.3.2〉 북한의 외채 (단위: US\$ 억달러,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외채총액	22.3	47.8	52.8	67.8	78.6	92.8	97.2	103.2	106.6	118.3
외채/GNP 비율	12.9	24.7	25.2	32.1	34.0	40.5	46.1	50.3	50.3	53.0
위기지수	1.0	2.0	2.0	3.0	3.0	3.0	3.0	4.0	4.0	4.0
대외경제 위기지수	1.0	1.5	1.5	2.5	2.5	3.0	3.0	3.5	4.0	4.0

주: 외채부문 위기지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음.

자 료: 앞의 표와 같음.

存型 경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외경제관계의 변화 추이는 주민 생활수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에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산업설비 도입 및 수출촉진 등을 통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상품수출능력 부족과 교역조건 악화, 그리고 경제체제를 포함한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1980년대 말 이래 구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체제변혁과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인해 북한은 상품수출시장을 상실함과 동시에 이들 동맹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중단되는 등 對外經濟環境의 악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기 부터 대외경제 부문의 위기지수는 상승하였다.

<위기지수의 평가>

1985년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分岐點이 된다는 측면에서 북한 對外貿易部門의 위기지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표 6.3.1>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해당연도 북한 수출입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위기지수는 1로 평가하였다. 둘째, 해당연도 수출입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1985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는 위기지수 2

로 평가하였다. 셋째, 해당연도 수출입 총액이 1985년 수출입 총액의 70% 이상 100% 이하인 경우 위기지수 3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해당연도 수출입 총액이 1985년의 70% 미만인 경우 위기지수 4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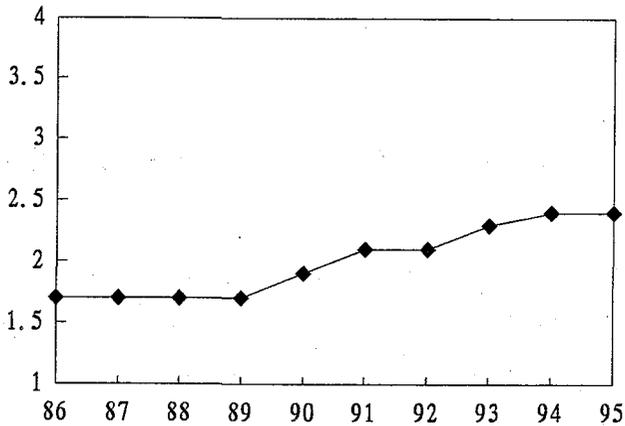
한편 북한의 대외채무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評價基準을 적용하여 <표 6.3.2>와 같이 위기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외채/GNP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는 위기지수 1로, 둘째, 외채/GNP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는 위기지수 2로, 셋째, 외채/GNP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위기지수 3으로, 넷째, 외채/GNP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위기지수 4로 평가하였다. 대외경제 전체의 위기지수로서는 무역 부문과 외채부문 위기지수의 산술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북한은 대서방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대외채무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1980년대 말 동구사회주의 권 체제변혁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는 곧 산업생산 부진과 생활필수품 부족 현상 및 에너지난으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외무역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1991년부터 북한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1993년을 전후해서 最惡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7장 통제분야 평가

1. 사회통제

<그림 7.1> 사회통제



본 지표는 북한에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公安기구의 주민통제,公安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이동, 탈북자 증감추이 등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의 위기지수는 아직 체제위기 임계점 2.5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표 중公安기구의 범법행위와 이동의 두 가지 측정항목의 위기지수가 각각 1991년과 1990년에 임계점을 통과하였다. 이는 경제난의 악화와 함께 공

안기구의 범죄통제가 약화되고 여행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같은 주민들에 대한 統制의 弱化는 체제를 ‘인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體制變革을 용이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표 7.1.1>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1.0	1.0	1.0	1.0	1.0	1.0	1.0	2.0	2.0	2.0
	기본군중	1.3	1.3	1.3	1.3	1.3	1.3	1.4	1.5	1.3	1.6
	동요계층	1.4	1.4	1.4	1.4	1.5	1.5	1.5	1.6	1.8	3.0
직 업 별	노동자	1.4	1.4	1.4	1.3	1.4	1.4	1.4	1.5	1.5	-
	농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인테리	1.0	1.0	1.0	1.0	1.0	1.0	1.0	1.0	1.0	-
	군관	1.6	1.6	1.6	1.6	1.6	2.0	2.0	2.0	2.0	2.0
	해외경험자	1.0	1.0	1.0	1.0	1.0	1.0	1.0	1.5	1.5	1.5
측정항목 위기지수		1.3	1.3	1.3	1.3	1.4	1.4	1.4	1.5	1.5	2.0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은 공안기구들의 주민생활 통제정도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북한사회가 아직까지 비교적 잘 統制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당국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체제이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사회주의그루빠”를 조직하는 등 公安機構들에 의한 주민통제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 체제는 일원적으로 조직화된 체제이며, 지금까지 일원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주민들의 사상과 사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안기구들의 주민통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체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면담결과를 보면, 북한당국의 주민통제 실태는 “세 명 이상 술도 못마신다,” “등도 남이다”라는 주민들의 불만섞인 표현 등에서 잘 나타난다(LHY). 공안기구들의 주민통제를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로 판단하고 있는 당국은 주민들간 상호감시 통제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4년 “당내 기본부서로서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보위부가 있

다”(CSK)라는 김정일의 언급이 보여 주듯이, 북한은 주로 반 체제행위자 색출을 주임무로 하는 國家安全保衛部の 역할과 위상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이완현상들이 증가할수록 당국의 사회적 통제는 더 강화되기 마련이다. 북한은 공안기구 중심의 통제를 확대하여 黨員들에게도 주민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로 협동농장에서 당원의 주민통제가 수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개 1개 협동농장에는 보위부원 1명, 사회안전원 1명이 배치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들이 4백~5백명(부양가족 포함 1천명 내외)의 농장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부분 당원들로 구성된 除隊軍人들을 ‘무리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민통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CDC).

<표 7.1.1>에서와 같이, 직업집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기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농민의 위기지수가 노동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두 집단간 생활영역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농민들은 협동농장 일과 후에도 생활영역이 인민반활동에 한정되는 등 私生活의 기회가 제한적인 반면, 노동자는 일과 후에 제한적이거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출신성분별로 보면, 동요계층, 핵심군중, 기본군중의 順으로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요계층의 경우, 1995년에 급격히 체제위기 임계점을 통과한 것이 특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안기구에 의한 주민통제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위기지수가 점차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배급체제의 붕괴로 인한 체제의 정당성 상실(AYK), 둘째로 1980년대 TV에서의 외화상영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열악성 인식(PSC)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일부 공안기관원들조차도 억압적 통제방식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다.

나.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표 7.1.2>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0	2.0	3.0	3.0	3.0	3.0	3.0	3.0	3.0	3.0
	기본군중	2.1	2.1	2.2	2.2	2.4	2.5	2.5	2.6	2.6	3.0
	동요계층	2.2	2.2	2.4	2.4	2.4	2.4	2.5	2.6	2.7	3.0
직 업 별	노동자	2.1	2.1	2.2	2.2	2.4	2.5	2.5	2.6	2.3	-
	농민	3.0	3.0	3.0	3.0	3.0	3.0	3.0	3.0	3.0	-
	인테리	2.5	2.5	2.5	2.5	2.5	2.5	2.5	2.5	2.5	-
	군관	2.0	2.0	2.3	2.3	2.3	2.3	2.3	2.3	2.5	2.5
	해외경험자	2.0	2.0	2.5	2.5	3.0	3.0	3.0	3.0	3.0	3.5
측정항목 위기지수		2.2	2.2	2.3	2.3	2.4	2.5	2.5	2.6	2.6	3.0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이 측정항목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범법행위에 대한 공안기구의 통제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1986년 이후부터 공안기구의 통제가 약간 불안한 조짐을 보이다가 1991년에 체제위기 임계점을 통과하였고,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서 經濟難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당국의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 약화는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더 나아가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체제에서는 사회적으로 범법행위가 만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능성 여부와 統制程度가 체제유지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결과를 보면, 북한사회에서 현재 주민차원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소매치기, 강도 및 절도, 사기, 향락·퇴폐행위, 성범죄, 그리고 官僚들 사이에서는 공공재산 횡령, 뇌물수수, 외화관련 부정·부패 등의 범법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

한 범법행위들은 靑少年 사이에서도 자행되고 있으며, 주로 원산, 함흥, 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 및 대도시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폭력, 살인,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법행위에 대한 공안기구의 대응 태도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사회적 파문이 크거나 김정일의 특별지시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處罰을 가한다. 주민들의 동조를 받는 범죄자에게는 공개처형을 하거나(KKI), 반당·반혁명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특별독재대상구역에 감금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일반 사범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고 풀어 주거나 감형해 주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생활고와 연관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통제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범들은 주로 경제부문 행정기관이나 협동단체소속 간부나 외화벌이사업 종사자들인바, 이들은 뇌물이나 연줄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CSK).

<표 7.1.2>에서와 같이, 직업집단별로는 해외경험자, 농민의 위기지수가 높았다. 농민집단의 경우 1986년부터 위기지수가 높은 이유는 경제난보다 농촌의 지역적 폐쇄성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한 상호 인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신성분별로 보면, 1991년~1992년을 기점으로 모든 집단들의 위기지수가 체제위기 임계점을 통과하여 공안기

구의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핵심군중의 위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특권층으로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안기구의 범법행위에 대한 統制가 弛緩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구책인 상행위와 같은 범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묵인(KCS), 둘째로 범법행위 단속책임자인 공안요원들의 수뢰(CDC), 셋째로 당·정·군 간부들과 공안요원들의 공생관계(YW, KDH) 등을 꼽을 수 있다.

다. 이동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측정항목은 북한주민들의 지역간 이동빈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에 체제위기 임계점을 넘어선 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이동이 급속히 증가한 주된 이유는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경제난 악화로 인해 식량난이 가중되자 주민들이 주로 食糧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표 7.1.3〉 사회통제 [이동]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1.5	1.5	2.0	2.0	2.0	2.0	2.0	2.5	3.0	3.5
	기본군중	2.2	2.2	2.2	2.3	2.9	3.0	3.2	3.1	3.2	2.0
	동요계층	2.5	2.6	2.7	2.8	2.9	3.0	3.1	3.6	3.7	4.0
직 업 별	노 동 자	2.4	2.4	2.4	2.4	2.7	2.7	2.9	3.3	3.8	-
	농 민	2.0	2.0	2.0	2.0	3.0	4.0	4.0	4.0	4.0	-
	인 테 리	2.5	2.5	2.5	2.5	3.0	3.0	3.0	3.0	3.0	-
	군 관	1.6	1.6	1.6	1.6	2.6	3.0	3.0	2.6	2.5	2.5
	해외경험자	1.6	1.6	2.0	2.0	1.6	1.6	1.6	2.0	2.3	2.6
추정항목 위기지수		2.2	2.3	2.3	2.4	2.7	2.9	3.0	3.2	3.3	2.8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모든 이동은 旅行證 발급없이 불가능하다. 이는 당국이 다른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차단하고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심각한 식량난은 여행에 대한 통제를 이완시킬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북한주민들은 식량구입을 위해 도시에서 農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평양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면담결과를 보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990

년부터는 식량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식량구입을 위한 여행을 허가하였다(YMC, JKH). 최근에는 여행이 급증하게 되자 여행증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식량배급소에 보관 중인 식량배급카드를 여행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CDC). 공장 및 기업소에서는 지배인들이 노동자들에게 과업을 주는 형태를 빌어 친척집에서 식량을 구해 오도록 하기도 한다(HSI, CSH). 여행목적 중 食糧購入 70%, 장사 15%, 출장 15% 정도(SMC)인 것을 보면, 식량난과 주민이동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표 7.1.3>에서 직업집단별 위기지수를 보면, 해외경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이 1990년을 기점으로 위기 임계점을 통과했다. 이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경제난 악화와 더불어 식량난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특히 타 집단과는 달리, 해외경험자의 위기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 식량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신성분별에 있어서는 동요계층, 기본군중, 핵심군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신성분이 나쁠수록 식량난이 심하며, 이로 인한 移動頻度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핵심군중의 경우 1994년~1995년에 위기지수가 급증한 것은 이 시기부터 핵심군중들조차도 식량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 탈북자 증감추이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탈북자 수에 기초해서 1986년~1995년 기간 동안의 위기지수를 보면, 1986년~1990년 1.0, 1991년~1992년 1.5, 1993년~1995년 2.0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기지수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탈북주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탈출주민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입국 탈북자 수와 제3국 거주 탈북자 수는 1991년 이후에 이미 급증했다. 현재까지의 탈북자 수에 기초한 위기지수를 보면 아직까지는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북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 체제가 점차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탈북자 증가현상에 대한 해석>

동구사회주의 체제들의 붕괴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민들의 대량탈출이 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체제로부터의 주민 이탈은 그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正體感(identity) 상실을 입증해 주는 근거이다.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량탈북 단계는 아니지만 탈북주민의 수가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현재 남한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 수는 61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탈북자 수의 증가추이를 보면, 1970년대 25명, 1980년대 60여 명에 비해 1994년부터는 연간 40명을 상회하고 있다.¹⁰⁾ 이 밖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제3국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주민의 수는 1,5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남한 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7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¹⁾

이와 같이 탈북주민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첫째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영향으로 인한 북한의 經濟難, 둘째로 경제난과 대규모 수해로 인해 가중된 食糧難, 셋째로 조선족 보따리 장수 및 해외경험자들로부터의 외부 정보 유입, 넷째로 사회통제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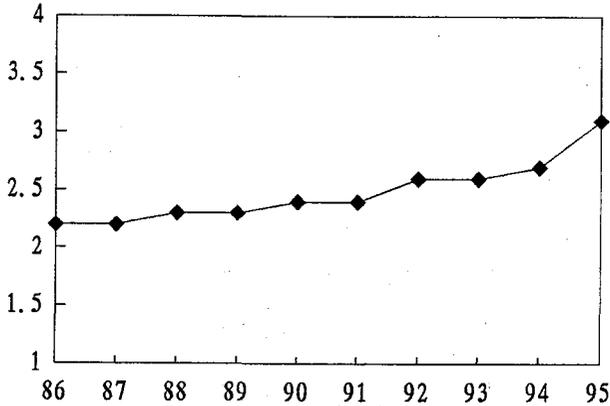
최근 북한당국이 탈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상교양과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탈북자 수의 증가는 위에서 열거한 그 원인들이 악화되고 있음을 또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 남한입국 북한탈출주민은 1990년 8명, 1991년 6명, 1992년 5명, 1993년 8명, 1994년 50명, 1995년 38명, 1996년 8월 현재 30명으로 발표되었다. 김병찬, “탈북정책, 정부 속사정은,” 「주간한국」(1996.9.5), p. 38.

11) 1996년 3월 15일 김대통령이 이북5도민대표 초청 오찬에서 탈북자들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앙일보」, 1996.8.10; 북경주재 대한민국대사관측은 지난 여름 대홍수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약 500~600명선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6.8.24.

2. 정치적 반대

〈그림 7.2〉 정치적 반대



본 지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비밀스런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는 체제에 대한 불만 또는 반대의사가 체제에 위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불만표출, 비판세력의 존재 가능성, 체제비판행위 등 3가지의 측정항목이 들어있다.

〈그림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예상보다도 반대행위가 體制를 威脅할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 이미 체제위기 임계점 2.5를 능가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최근에는 3.1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대 초 반들어 주민들 사이에서 특히 현 체제를 비판하는 낙서와 배라를 목격하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고 반체제 모반행위에 대한 신뢰성있는 소문이 확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 불만표출

〈표 7.2.1〉 정치적 반대 [불만표출]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5	2.5	2.5	3.0	3.0	3.5	3.5	3.5	3.5	3.5
	기본군중	2.0	2.0	2.0	2.0	2.2	2.2	2.1	2.3	2.2	1.6
	동요계층	2.3	2.3	2.4	2.4	2.4	2.4	2.4	2.3	2.8	4.0
직 업 별	노동자	2.6	2.6	2.6	2.6	2.7	2.7	2.7	2.6	2.8	-
	농민	2.0	2.0	2.0	2.0	2.0	2.0	2.0	3.0	3.0	-
	인테리	1.5	1.5	1.5	1.5	1.5	1.5	1.5	1.5	1.5	-
	군관	3.3	3.3	3.3	3.3	3.6	3.6	3.6	3.6	3.5	3.5
	해외경험자	2.0	2.0	2.0	2.3	2.3	2.6	2.6	2.6	2.6	2.6
측정항목 위기지수		2.2	2.2	2.3	2.3	2.4	2.4	2.4	2.4	2.5	2.6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이 측정항목은 식량배급, 여행, 노동조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불만표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1986년부터 1994년까지 큰 변화없이 약간의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4년에 체제위기 임계점을 넘었으나 이전의 해와 크게 차별화할 수준은 아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다원화된 민주주의체제에서는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불만 표출 행위가 단순히 個人的 차원이나 업무상 의견갈등의 수준에서 발생하므로 이것이 전체 조직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획일적 통제 중심의 위계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개인적 차원이나 업무상 의견갈등은 민주주의체제에서와는 달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면담결과를 보면, 북한에서의 불만표출은 정당한 사안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지만, 김일성·김정일이나 당의 시책에 대한 불만표출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체제에 도전하는 불만표출이 아닌 정당한 이유에서의 불만표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의 지도력과 당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경우, 은어와 같은 우회적 표현을 사용한다.

대개 상급자에 대한 불만표출은 업무추진상의 갈등(AYK, KKI), 상급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비판, 작업배정의 부당성(SBL, OMS), 가족의 관혼상제 참석(CJH), 질병치료(CJH), 임금체불(OMS), 식량배급 중단(SBL, LSO) 등과 관련한 非政治的 問題들에서 비롯된다. 노동자의 경우, 지배인이나 당비서에 대한 불만표출은 자제하고 직속 상급자나 기타 간부에게 주로 불만을 표출한다(YSC). 이는 김정일의 당권장악 이후 당을 장

화하고 행정간부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기 때문이다(HSI).

<표 7.2.1>에서와 같이 직업별로는 1994년 기준 군관, 농민, 노동자, 해외경험자, 인테리의 순으로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군관의 위기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정치장교와 지휘관이라는 이원적 군대구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불만들이 표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인테리가 낮게 나타난 것은 그들의 신분에서 따른 社會的 餘波를 우려한 만큼 “입조심”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출신성분별로는 핵심군중, 동요계층, 기본군중의 순으로 위기지수가 높았다. 핵심군중의 경우, 1986년부터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핵심군중이 비정치적인 문제인 이상 불만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표출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이 측정항목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1992년에 체제위기 임계점을 통과하였으며 서서히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2.2〉 정치적 반대 [비관세력 존재 가능성]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2.0	2.0	2.5	2.0	2.0	2.0	2.5	2.5	2.5	2.5
	기본군중	2.1	2.2	2.3	2.3	2.6	2.6	2.7	2.7	2.6	3.3
	동요계층	2.2	2.2	2.2	2.2	2.3	2.3	2.5	2.4	2.7	3.0
직 업 별	노 동 자	2.0	2.0	2.0	2.0	2.2	2.2	2.3	2.4	2.5	-
	농 민	3.0	3.0	3.0	3.0	3.0	3.0	3.0	3.0	3.0	-
	인 테 리	1.5	1.5	1.5	1.5	1.5	1.5	1.5	1.5	1.5	-
	군 관	2.6	2.6	3.0	3.3	3.3	3.3	3.6	3.3	3.0	3.0
	해외경험자	2.0	2.0	2.3	2.0	2.3	2.3	2.6	2.6	2.6	2.6
측정항목 위기지수		2.1	2.2	2.2	2.2	2.4	2.4	2.5	2.5	2.6	3.0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과 같은 철저한 통제사회에서 비관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체제의 위기수준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만한 사실이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수령중심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유일적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일적 체제 내에 반체제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이원적이거나 다원적인 체제로 變化할 수 있도 있음을 의미한다.

면담결과, 북한에서는 쿠데타 시도와 같은 몇 차례의 반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지금

도 반체제세력들이 潛在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 면담자는 반체제세력이 군당 지도원급 또는 노동당 과장급 정도의 中間幹部層에 있으며, 이들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의 건설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CSK).

직업집단별로는 <표 7.2.2>에서 인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들이 위기 임계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아, 이제 북한 내에서 반체제세력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게 認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관집단의 위기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푸른제군사학교 출신 장교들의 쿠데타 시도 등과 같은 군대내 반체제 사건에 대한 所聞이 影響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탈북자는 1992년 푸른제군사학교 출신 장교들의 쿠데타 시도를 북한내 정치적 반대세력 존재가능성의 실례로 꼽았으며 (AYK), 또 다른 탈북자는 1995년 6군단 사건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척이 이에 연루되었다고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반대세력의 存在 可能性을 지적하였다(LJK).

출신성분별로도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모든 출신성분의 위기지수가 위기 임계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아 북한내의 반체제 존재 가능성이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88년 김일성대 수재반에 속한 간부자녀들이 남한 및 중국의 경제관리 체계를 연구하고 뼈라살포 및 체제비판 투서를 한 사건인 “별” 조직 사건(HSI), 1992년 4월 김일성 생일기념 경축야회 자폭미수 사건(CSK), 1993년 3월 만수대 김일성 동상 폭파미수 사건(KDH) 등에 대한 탈북자들의 진술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다. 체제비판 행위

〈표 7.2.3〉 정치적 반대 [체제비판 행위]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3.0	3.0	3.0	3.0	3.0	3.0	4.0	4.0	4.0	4.0
	기본군중	2.5	2.6	2.7	2.6	2.8	2.9	3.1	3.2	3.3	3.6
	동요계층	2.0	2.0	2.0	2.0	2.0	2.0	2.3	2.2	2.5	4.0
직 업 별	노동자	1.8	1.9	1.9	1.9	1.9	2.0	2.0	1.9	2.3	-
	농민	3.0	3.0	3.0	3.0	3.0	3.0	3.0	3.0	3.0	-
	인테리	3.0	3.0	3.5	3.0	3.0	3.0	3.0	3.0	3.0	-
	군관	2.6	2.6	3.0	3.0	3.6	3.6	3.6	3.6	4.0	4.0
	해외경험자	2.6	2.6	2.6	2.6	2.6	2.6	4.0	4.0	4.0	4.0
측정항목 위기지수		2.3	2.3	2.4	2.3	2.4	2.5	2.7	2.8	3.1	3.8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이 측정항목은 조직화된 체제비판행위가 아닌 一時的이고 非組織化된 체제비판행위들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측정항목과 다르다.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체제위기 임계점 통과시점이 1991년이며 이후 위기지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모든 체제에는 체제비판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체제비판행위가 의도하는 目的이다. 면담결과 북한 주민들의 체제비판행위는 뚜렷한 대안을 가진 목적추구적인 집단행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김일성·김정일 비판행위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체제 不安要素의 증가 및 심화라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물론 북한주민들의 체제비판행위가 목적의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한다거나 중국식의 개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체제비판행위는 주로 뼈라살포나 낙서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CJH, KKI, HSI, CSK, S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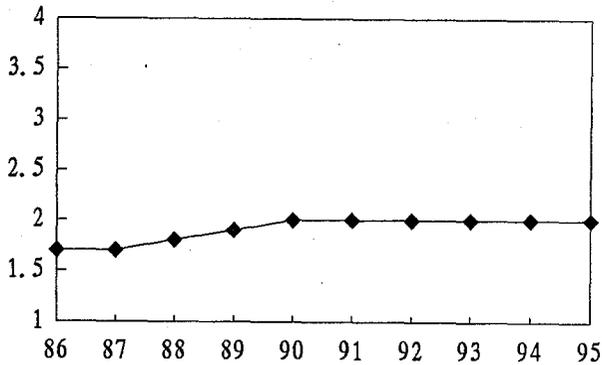
직업집단별로 보면, <표 7.2.3>에서와 같이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1986년부터 위기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군관과 해외경험자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위기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군대 자체가 공간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군관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타 집단에 비해 더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기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해외경험자들 역시 활동영역이 넓으므로 정보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출신성분별로 보면,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은 1986년부터 임계

점을 통과한 반면, 동요계층은 비로소 1994년에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는 출신성분이 좋을수록 일찌기 체제비판행위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했음을 보여준다. 체제비판의 內容들을 보면, 김일성부자의 독재비판(KKI), 사회주의권 붕괴와 같은 북한 체제의 붕괴, 김정일 타도, 김정일의 호화방탕한 생활, 김정일의 통치력 무능(SMC) 등이 있다.

3. 반문화 형성

<그림 7.3> 반문화의 형성



본 지표는 북한의 사회주의문화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 문화, 종교활동, 전통적 집단 의식 등 3가지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의 위기지수는 <그림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이하로서 위대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북한에서는 특히 종교활동이 철저히 통제됨으로써 반체제의 온상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靑少年 文化의 측정항목의 위기지수가 1987년 체제위기 임계점을 넘어서고 1994년 3.5에 이르러 세대차와 이에 따른 사회주의 문화의 훼손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가. 청소년 문화

<표 7.3.1> 반문화의 형성 [청소년 문화]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기본군중	2.2	2.5	2.8	3.3	3.5	3.5	3.6	3.6	3.6	3.3
	동요계층	2.6	2.7	2.9	3.3	3.4	3.4	3.4	3.4	3.7	4.0
직 업 별	노동자	2.4	2.6	3.0	3.1	3.3	3.3	3.3	3.3	3.6	-
	농민	2.0	2.0	2.0	4.0	4.0	4.0	4.0	4.0	4.0	-
	인테리	2.6	2.6	2.6	2.6	3.0	3.0	3.0	3.0	3.0	-
	군관	2.3	2.6	2.6	3.3	3.3	3.3	3.6	3.6	3.5	3.5
	해외경험자	2.6	2.6	2.6	3.0	3.0	3.0	3.0	3.0	3.0	3.0
측정항목 위기지수		2.4	2.6	2.8	3.2	3.4	3.4	3.4	3.4	3.5	3.3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이 측정항목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놀이문화가 존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1987년 이후 위기 임계점을 통과하여 점증하고 있다. 이는 1989년에 북한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면서 자본주의적 놀이문화가 상당히 유입되어, 청소년들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초한 資本主義的 文化를 선호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문화는 체제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를 지배하는 문화는 프롤레타리아 階級意識과 價値觀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체제에는 지배적인 문화와 함께 반문화가 부분적으로 병존하지만 북한과 같이 획일적인 체제에서는 반문화가 허용될 수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 문화는 청산과 독재의 대상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산주의적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반문화로서 자본주의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有意味한 사안이다.

면담결과, 북한의 靑少年들은 북한 당국의 공식허용하에 1987년부터 무도회 등에서 자본주의적 노래·춤 등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와 같은 의상들을 선호하였다(CJH, LCS). 특히 남한가요를 부르며 여기에 맞춰 디스코춤을 출 정도로 자본주의적 놀이문화가 유행하였다(LCS, PSC, JKH).

문제는 고위층 자제들일수록 남한의 노래와 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들간에는 남한노래를 모르면 世代差를 느낄 정도라는 것이다(JKH).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놀이문화가 점차 세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번 태동한 문화는 쉽게 일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국이 1990년대 초반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CJH).

직업집단과 출신성분별로 보면, 모든 집단과 출신성분에서 1989년을 기점으로 위기지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평양축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1990년들어서는 북한 청소년들에게 자본주의적 놀이문화를 전파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인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 등이 중국교포, 북송교포, 조총련 방문자들을 통해 流入되고 있다.

나. 종교활동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이 측정항목은 북한에서 종교활동 존재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표 7.3.2>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북한헌법 67조가 형식적인 대외선전용임을 알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표현은 사회주의적 종교관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 신앙자유가

〈표 7.3.2〉 반문화의 형성 [종교활동]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기본군중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동요계층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직 업 별	노동자	1.0	1.0	1.0	1.0	1.0	1.0	1.0	1.0	1.0	-
	농민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인테리	1.0	1.0	1.0	1.0	1.0	1.0	1.0	1.0	1.0	-
	군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해외경험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측정항목 위기지수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장되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조선천주교도연합회와 조선종교인협의회 등을 결성하였으며, 평양장충성당,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500여개의 가정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 전역에 사찰이 있음을 주장했다.

탈북자와의 면담결과, 북한 주민의 신앙생활과 종교적 자유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충성당이나 칠골교회 등은 1년 내내 닫혀 있으며, 對外弘報를 위한 건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목사 및 신부는 통일전선부 요원으로서 신자는 그 가족들 또는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안전보위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이 측정항목은 북한의 일반주민들간에 학연, 지연, 혈연에 바탕을 둔 사회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전시기에 걸쳐 체제위기 임계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통적 집단의식이 당국에 의해 잘 抑制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모든 인간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수령·당·대중이라는 유기체적 결합의 틀 속에서만 개인과 가정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강조하면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만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인 유대에 기초한 전통적 집단의식은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制限的이나마 전통적 집단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결과 나타난 전통적 집단의식에 기초한 관계는 다음과 같다. 명절날 동창모임(SMC) 또는 상급자 집방문, 무리배치 세대군인들의 동일부대 출신들간의 모임(CDC), 직장에서의 동향인 우대(KCH) 등이다. 여기에서 나타

난 특징은 전통적 집단 의식에서 볼 수 있는 온정에 기초한 관계라기 보다는 수혜·후원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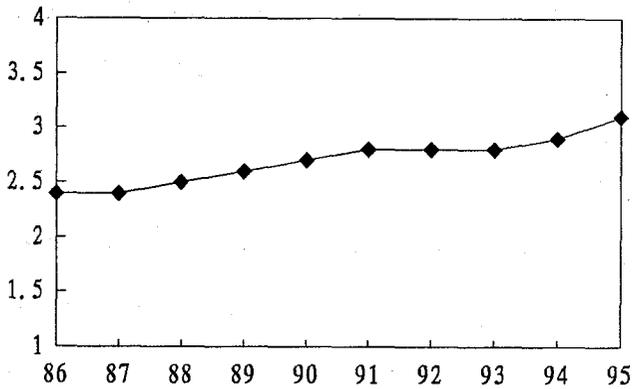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통적 집단 의식에 기초한 의리의 관계를 강조하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서서히 대두하고 있다(OMS, JKH, YW). 이들은 친구관계를 통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개인적 요구를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연대의식을 가지기도 하며, 의형제를 맺어 소규모 조직을 비밀리에 결성하는 등 집단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극히 制限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3.3>에서 직업집단별 및 출신성분별 위기지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낮지만 핵심군중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위기지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당국이 엄격한 반종파주의를 견지하고 있고, 주민들간의 상호감시 체제로 인한 불신풍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 명 이상이 모여 음주하지 말 것, 조직생활 이외에는 세 명 이상이 몰려다니지 말 것, 자정 이후에는 불을 켜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金正日의 3개항 布告書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제8장 대외관계분야 평가

1. 외부정보의 유입

〈그림 8.1〉 외부정보의 유입



본 지표는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한변화의 인지도와 중국변화의 인지도 등 2가지의 측정항목이 들어 있다.

지표의 위기지수는 <그림 8.1>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1988년 이미 체제위기 임계점 2.5를 통과하고 서서히 증가하여 최근 3.1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에서 외부사조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思想教養을 실시하고 갖가지 統制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중국변화 인지도의 위기지수는 1980년대부터 상

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5를 기록하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아는 만큼 中國式의 變化를 동경한다는 점이다.

가. 남한변화의 인지도

<표 8.1.1> 외부정보의 유입 [남한변화의 인지도]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3.3	3.0	3.0	3.0	3.0	3.0	3.0	3.0	3.0	3.0
	기본군중	1.6	1.7	1.8	2.2	2.5	2.6	2.8	2.8	2.7	3.0
	동요계층	1.6	1.6	1.7	1.7	1.9	1.9	1.9	1.9	2.0	2.0
직 업 별	노동자	1.6	1.6	1.8	2.1	2.2	2.2	2.4	2.5	2.5	-
	농민	1.0	1.0	1.0	1.0	2.0	2.0	2.0	2.0	2.0	-
	인텔리	2.0	2.3	2.3	2.6	3.0	3.0	3.0	3.0	3.0	-
	군관	2.3	2.3	2.3	2.3	2.6	2.6	2.6	2.6	2.5	2.5
	해외경험자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측정항목 위기지수		1.7	1.7	1.8	2.0	2.2	2.3	2.3	2.4	2.4	2.8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여기서는 남한의 변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남한변화의 인지도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조금씩 증가했으나 체제위기 임계점인 2.5를 넘어선 것은 1995년에 이르러서이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포함해 남한과 사회주의 동맹국가들과의 수교 및 경제관계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권 몰락 및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된 점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 당국은 南韓이 미국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植民地이며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이러한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남조선혁명론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언급한 國際情勢의 變化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8.1.1>에서와 같이 직업집단별 위기지수는 1994년 기준 인테리, 해외경험자, 군관, 노동자, 농민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경험자들의 위기지수가 높은 이유는 남한 및 해외 소식을 다른 직업에 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적 속성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특히 外交部 일꾼들은 비교적 세계정세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외교부의 자료들은 등급이 있어 낮은 등급에는 남한의 발전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지만 “참고통신”에는 남한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지도원급 이상은 이것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자료통신”에는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CNN, Newsweek 등은 외교관들에게 開放되어 있다(HSI).

인테리도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소식을 어느 정도 접한다. 헝가리·남한 수교, 고르바초프 남한 방문 및 남한의 대소 30억 달러 경제원조, 한국의 선박공업을 비롯한 經濟發展 실상 등은 이들에게 충격적이었다(KCS). 특히 군관들은 남한동향을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남한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CJH). 그러나 노동자들은 외국을 여행한 동료들이 들여온 전자제품 등을 보고 남한이 잘 사는 것을 조금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SMC). 북한 당국의 思想敎養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오히려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도로를 청소하는 사람까지 전화기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YMC)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도시로부터의 거리때문에 외부소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신성분별로는 핵심군중 외 기타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군중은 1986년부터 1995년 전 기간에 걸쳐

3.0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 소식을 다른 계층에 비해 많이 알고 있다. 기본군중은 1989년까지 1.6에서 2.2으로 낮거나 조금 낮다가 1990년 위기 임계점을 통과하여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 기본군중 출신의 탈북자는 외국서적 특히, 日書를 통해 남한의 경제발전을 비교 시각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KCH).

직업별·출신별 모두에서 198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한 및 국제정세에 대한 변화를 일부 주민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울올림픽, 정주영·임수경 방북 등은 그들이 남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또한 남한의 시위현장 뉴스에 보이는 건물, 옷 등에 대해 의아심을 갖고 보면서 남한이 풍요로운 사회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SBL, LJK). 또한 13차 평양축전을 계기로 남한소식이 전해지고 특히 남한의 자동차산업 발달 사실 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KDH). 해외파견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라디오, TV 등을 통해 남한소식을 조금 접할 수 있었고(JJK), 남한제품이 북송 교포 방문단에 의해 북한에 들어와 남한이 잘 산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OMS).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일제차와 함께 현대 및 대우 자동차가 청진항을 통해 온성군을 거쳐 중국에 밀수출되면서 운전자들을 통해 남한의 발전상을 인식하게 되었다(CDC, LSO).

이상과 같이 일부 주민들이 남한 변화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남한체제에 대한 否定的 宣傳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KYK). 남한의 경제발전에 대해 동경하는 소문이 확산되자(JKH, YW, KKI, KCH), 북한 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동신문과 같은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남한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한강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로 전락했다”고 선전한 적이 있다(LCK). 또한 정주영 방북 이후 남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은 “남한 사회에 대한 이상화를 가지지 말데 대하여”란 특별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LYS).

나. 중국변화의 인지도

<표 8.1.2> 외부정보의 유입 [중국변화의 인지도] 위기지수

집단별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성 분 별	핵심군중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기본군중	3.0	3.0	3.3	3.3	3.5	3.6	3.6	3.6	3.6	3.6
	동요계층	3.1	3.1	3.2	3.2	3.2	3.2	3.2	3.2	3.1	3.0
직 업 별	노 동 자	2.7	2.7	2.8	2.8	3.0	3.0	3.0	3.1	3.3	-
	농 민	3.0	3.0	3.0	3.0	3.0	3.0	3.0	3.0	3.0	-
	인 테 리	3.6	3.6	4.0	4.0	4.0	4.0	4.0	4.0	4.0	-
	군 관	3.0	3.0	3.3	3.3	3.3	3.3	3.3	3.3	3.0	3.0
	해외경험자	3.3	3.3	3.3	3.6	3.6	3.6	3.6	3.6	3.6	3.6
측정항목 위기지수		3.0	3.0	3.2	3.2	3.3	3.3	3.3	3.3	3.4	3.5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북한 주민들의 중국변화에 대한 인지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계속 增加하여 최근 3.5를 기록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교포들의 왕래, 북한 주민들의 밀무역 등을 통해 중국의 改革·開放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중국의 변화에 대해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면담내용을 중심으로한 기술>

북한 주민은 중국처럼 개혁·개방하여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개방이 확대되어 合營企業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작업시간 단축, 식·의·주 문제 해결 등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북한 당국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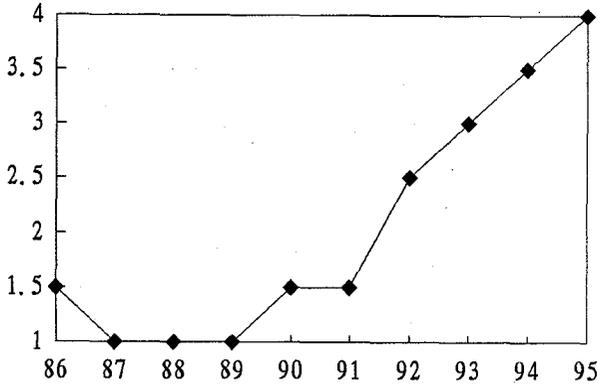
<표 8.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별 위기지수는 인테리, 해외경험자, 군관, 노동자, 농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출신성분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3.0 이상을 보이는 등 중국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이와 같이 직업별, 출신별 상관없이 전 집단이 공통적으로 중국의 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理由는 무엇인가? 북한 주민들은 국경근방에 있던 중국의 초가

집이 사라지고 중국 장사꾼의 물품이 좋아져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CDC). 또한 수건, 스타킹, 샴푸 등과 같은 중국산 생필품의 유입을 통해 1983년 중반부터 “특색있는 사회주의”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SMC). 아울러 중국의 연변신문, 잡지, 영화를 통해서 개혁·개방의 성과에 대해 알게 되었다(KCH, LCK). 이 외에도 중국과의 밀무역업자, 중국 유학생 등도 중국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물론 인텔리들까지 북한이 중국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KI). 그리고 이들은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이다”라는 등소평식 명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LCK). 심지어 노동자들은 북한은 “왜 중국처럼 개혁하지 못하는가”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LHY).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중국의 변화를 “자본주의의 썩고 명든 문화”(CDC)로 평가하거나 “개혁, 개방으로 중국이 썩어가고 있다”(YMC)라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2. 안보자원의 확보

<그림 8.2> 안보자원의 확보



본 지표는 북한 체제의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을 어느 정도 원활히 확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곡물생산량과 외부유입량간의 대비, 원유도입량 등 2가지 측정항목이 들어있다.

지표의 위기지수는 <그림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까지는 안정적 수준이었다가 199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가 악화된데다 中國과 러시아의 경화결제 요구 등으로 이 같은 안보자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보자원의 확보란 점에서 북한은 매우 脆弱한 바, 15가지의 RINU지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기지수를 보이고 있다.

〈표 8.2.1〉 곡물 생산량 및 외부유입량 (단위: 만 M/T)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곡물생산량	503	483	495	521	548	481	443	427	388	413	345
곡물유입량	69	89	77	51	24	91	129	83	109	49	96
총 곡물공급	572	572	572	572	572	572	572	510	497	462	441
위기지수	-	1.0	1.0	1.0	1.0	1.0	1.0	2.0	3.0	3.0	4.0

주: 자료가 없는 1985-90 곡물유입량은 1991년도 곡물생산량과 곡물유입량을 합한 수치에서 당해년도 생산량을 감한 것임.

자 료: 앞 표의 자료; 통일원, 「북한의 제3차7개년 종합평가」.

〈표 8.2.2〉 원유도입량 (단위: 만 M/T)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원유도입량	256	226	300	311	256	247	189	152	136	91	110
원유도입지수 (1985=100)	-	88.3	117.0	121.5	100.0	96.5	73.8	59.4	53.1	35.5	43.0
위기지수	-	2.0	1.0	1.0	1.0	2.0	2.0	3.0	3.0	4.0	4.0
식량/원유 위기지수	-	1.5	1.0	1.0	1.0	1.5	1.5	2.5	3.0	3.5	4.0

주: 원유도입지수는 1985년 도입량을 100으로 보고 산출한 것임.

자 료: 앞표의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북한경제 중에서 穀物 및 原油는 체제생존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측정항목이다.

<표 8.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穀物 生産量은 1989년을 정점으로 기후조건 악화,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용 공업제품의 공급부족, 경제난으로 인한 농민의 근로의욕 감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1년까지는 대체로 중국의 지원성 수출에 힘입어 곡물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이후 북한의 외화부족, 공업가동을 저하,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 및 곡물가격 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食糧難을 악화시켰으나, 1993년 무렵까지는 비축미의 활용 등을 통해 공식배급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 이후 심각한 냉해 및 수해, 비축미 감소 등으로 인해 최악의 식량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표 8.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原油 導入量은 198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까지의 원유도입 감소는 경제활동 침체에 따른 자연 도입감소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1992년 이후에는 북한의 외화부족, 중국 및 구소련과의 경제관계 변화 등으로 인해 도입량의 감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도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1989년의

43%에 불과하여 북한 산업가동률 저하 및 병목현상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기지수의 평가>

일반적인 해의 북한 연평균 곡물 생산량이 1991년 생산량인 550만톤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량 공급량과 관련된 위기지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1991년 곡물공급 수준인 550만톤 이상은 위기지수 1로 평가한다. 둘째, 곡물 생산량 500만톤 이상 550만톤 미만은 위기지수 2로 평가한다. 셋째, 곡물 생산량 45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은 위기지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넷째, 곡물 생산량 450만톤 이하인 경우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보아 위기지수 4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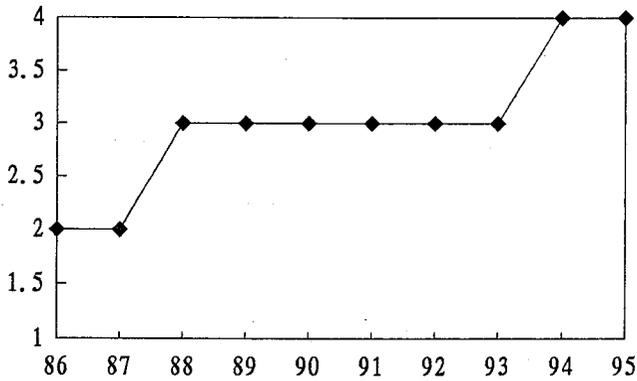
원유 도입량과 관련하여 위기지수의 評價基準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연도 원유 도입량이 1985년도 도입량 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는 위기지수 1로 평가한다. 둘째, 해당연도 원유 도입량이 1985년 도입량의 7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위기지수 2로 평가한다. 셋째, 해당연도 원유 도입량이 1985년 도입량의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는 위기지수 3으로 평가한다. 넷째, 해당연도 원유 도입량이 1985년 도입량의 50% 미만인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위기지수가

4인 것으로 평가한다.

식량·원유 위기지수는 식량과 원유부문 위기지수의 산술평균치이며, 곡물 및 원유 공급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은 1993년 이후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그림 8.3〉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시기별 변화에 대한 개관〉

본 지표는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면 될수록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지표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문제제기를 기초로 할 때 지난 10년 동안의 위기지

수는 1986년~1987년에는 2, 1988년~1993년에는 3, 1994년~1995년에는 4로 표시될 수 있다. 즉 1988년부터 북한의 인권문제는 체제의 正當性을 의심받을 만큼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의한 위기지수 증가추이>

북한은 수령과 당의 절대통치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이다. 인간을 매개로 한 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유기체적 가족국가관 등은 首領中心主義 및 集團主義原則 重視理念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표방하는 사람중심주의는 허구에 불과하다. 法體系 역시 사람 중심이 아니다. 헌법 및 법률은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노동당 결정의 하위규범이며, 모든 형법은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북한 헌법 제65조엔 “공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으며 핵심계층 외 다른 계층의 基本的人權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이 북한주민들의 人權實態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제한적이거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방북자, 귀순자 그리고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구성된 국제인권기구의 報告書들에서 점차 확인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가 단순히 내부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國際問題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8년 12월 이래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는 바,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 감시위원회(Asia Watch) 및 미네소타 변호사회 국제인권위원회(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의 「북한의 인권」 보고서(1988.12)는 “북한정부는 조직적인 인권탄압과 자유억압 및 통제·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정보부재,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¹²⁾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의 중요성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이하 AI),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들이 북한의 인권에 큰 關心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989년 이후 매년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해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北送僑胞들의 인권상황과 政治犯들의 인권실태를 폭로해 오고 있다. 1994년 7월에 발표된 「국제사면위원회 94년 연례인권보고서」는 승호리수용소 수감자 명단 및 처벌 처우 등을 밝히고 이러한 “정치범수용소가 10개 이상 있

12)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서울:고려원, 1990).

으며, 15~20만명의 수용자가 있다”¹³⁾고 전하고 있다. 1995년 7월에 발표된 「국제사면위원회 95년 연례인권보고서」는 “북한의 많은 수용소에서 양심수와 정치범, 해외에서 송환된 사람들, 재일교포 등이 임의구금, 고문, 약식처형 등으로 희생되고 있으며,¹⁴⁾ 그들 중 “정치범들과 양심수들이 불법수감된 것으로 보이거나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¹⁵⁾고 밝히고 있다.

한편, 美國의 헤리티지재단은 1992년 7월 “북한의 인권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93년 1월 “북한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인권마저 허용치 않고 탄압통치를 계속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¹⁶⁾으로 평가하고, 1994년 2월에는 “북한은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아래 있는 독재국가로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인권이 계속 부정되고” 있으며, “12개 정치범수용소¹⁷⁾에 약 15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되어

13)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94년 연례인권보고서, 북한관련 부분,”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첨부(1994), pp. 103~109.

14) 「세계일보」, 1996.3.30. 북한당국은 AI 조사단원에게 북한의 전체죄수는 약 8백~1천여명이며 이들을 3개 교화소에 수용하고 있으며,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육소’에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67.

15) AI,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i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5* (London: AI, 1995).

16)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93 Human Rights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1994).

17) 북한은 최근 12개의 수용소를 5개로 축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AI 방북보고 내용,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Visits North

있으며, 평양거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¹⁸⁾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 조차 1993년 3월 제4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¹⁹⁾고 주장하였으며,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국, EU, NGO대표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다.²⁰⁾

국제언론인협회(IPI)도 1995년 5월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제민간인권기구인 국제인권협회(ISHR)는 1996년 3월 북한에는 체계적 주민감시와 억압, 불합리한 형법전, 40여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政治犯收容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²¹⁾

Korea, Discusses Legal Reforms and Prisoner Cases,” (1995.5.11).

18)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93 Human Rights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1994).

19)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제144호(1993.6), p. 59.

20) 김병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9), p. 66.

21) 「세계일보」, 1996.4.1.

제Ⅲ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내구력 전망 및 결론

제9장 체제 내구력 전망

이미 위기수준에 도달한 북한체제는 이제 개혁을 통해 점진적 체제변화로 이끌어질 것인가 혹은 대응조치의 미비로 급격한 체제변혁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해 설명하되 연구내용이 위기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었던 만큼 위기수준 증가에 따른 급격한 체제변혁에 초점을 둘 것이다.

1. 급격한 체제 내구력의 소진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1992년에 전반적인 위기지수가 體制危機 臨界點 2.5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체제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제요건(prerequisite)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기지수의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최근의 위기지수가 2.8(1994년 기준) 이상에 이르러 RINU 지표들의 속성이 체제의 존속에 상당히 해로운 정도로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북한 당국이 체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면, 전반적인

위기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必須要件(requisite)이 갖추어지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내구력이 급속하게 소진되어 체제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급격한 체제변혁의 필수요건이란 무엇일까? 또 어떤 유형의 급격한 변화가 가능할까? 여기서는 필수요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급격한 변혁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가. 김정일의 신상변화에 따른 체제변혁

먼저 체제변혁을 위한 豫測 不可能한 필수요건으로서 金正日의 개인적인 신상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김정일에로의 권력세습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대를 이어 혁명” 등 주체 사상에 나타난 많은 논리와 구호들을 통해 이를 정당화해 왔다. 그 결과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정일 권력 승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 개인의 체제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북한과 같은 유일적 지배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신상변화가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 사회주의체제 자체가 급격한 변혁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란 급속한 건강악화, 돌발적 사고, 주변인물에 의한 시해 등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과 같이 구조적인 모순이 누적되어 체제가 위기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核心要素인 김정일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돌발적인 사건은 체제 차원의 급속한 붕괴로 발전할 수 있다. 이같은 계기적 변화의 논리는 이미 2장 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위수준에서 구조적 모순이 성숙한 상태에서는 하위수준의 핵심요소에서의 변화가 상위수준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명제에 그대로 들어 맞는다.

나. 사회통제 및 공식이념의 마비에 따른 체제변혁

다음으로 위기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급격한 체제변혁을 억제하는 요소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급격한 체제변혁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제」와 「공식이념의 기능」의 두 지표를 體制變革의 抑制要素로 보고자 한다. 그 근거는 면담에 응한 탈북자들이 불안정 속의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통제」(전체의 46.5%)와 「공식이념의 기능」(32.6%)을 꼽았기 때문이다.²²⁾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외경제관계」, 「안

22) 이 외에 엘리트 응집은 9.3%, 외부정보의 유입 차단은 9.3%,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는 9.3%를 나타냈다.

보자원의 확보」, 「생활수준」 등 경제관련 지표들의 위기지수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엄격한 사회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체사상이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 까닭에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주체사상의 명제들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면 체제의 존속은 어렵게 되며, 이 점에서 「사회통제」와 「공식이념의 기능」은 체제변혁을 억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두 지표는 통계적으로 다른 지표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표들과의 相關計數(correlation coefficient)에서 「사회통제」는 0.97~0.39 그리고 「공식이념의 기능」은 0.96~0.43를 기록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사회통제」와 「공식이념의 기능」의 위기지수 증가는 다른 지표들의 위기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억제요소의 위기지수가 3.0~3.5에 이르는 경우를 체제변혁의 필수요건, 즉 體制變革의 臨界點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미 2장 2절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3.0~3.5 사이의 척도는 체제에 대한 낮은 수준의 危害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해까지를 뜻한다.

體制變革 豫想時期는 위기지수의 점진적인 증가추이가 선형적(linear) 경향을 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제」와 「공식

이념의 기능」의 위기지수 변화의 최적함수(또는 회귀방정식) $Y=a+bX$ 들이 체제변혁의 임계점 3.0~3.5 사이를 통과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X =예상연도이고, Y =임계점을 의미하며 「사회통제」 위기지수 변화의 회귀방정식에 따른 예상연도는

$$X_1=Y/b_1-a_1/b_1 \quad (a_1=-190.411111, \quad b_1=0.096667) \quad \dots [1]$$

그리고 「공식이념의 기능」 위기지수 변화의 회귀방정식에 따른 예상연도는

$$X_2=Y/b_2-a_2/b_2 \quad (a_2=-133.705556, \quad b_2=0.068333) \quad \dots [2]$$

에 의해 각각 구해진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제」의 방정식 [1]은 2001년~2006년 사이에 그리고 「공식이념의 기능」의 방정식 [2]는 2001년~2008년 사이에 體制變革의 臨界點을 통과하는 바, 현재의 위기지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2001년~2008년 사이에 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豫想된다. 이 시기는 향후 5년~1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2장 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같은 체제변혁이 반드시 북한이라는 체계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변국들의 태도와 한국의 대응능력에 따라 사회

주의체제의 변혁과 북한 체제의 총체적 붕괴의 계기적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 점진적 개혁 및 내구력의 유지

한편, 만일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이 각 지표에서 드러난 非公式 部門들을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해당 지표 및 전반적인 위기지수는 정체 내지는 감소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 부문이란 현 체제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체제의 규범을 벗어난 측면을 말한다. 북한 당국이 이같은 비공식적 측면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漸進的 改革의 길로 들어 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체제의 속성은 서서히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체제로부터 벗어난 改革的 社會主義 體制가 될 것이다. 개혁적 사회주의체제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일부 자본주의적 시장요소들을 도입하고 미국, 일본, 남한과의 대외경제관계를 개선하며, 이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위기지수의 정도를 정체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혁적 사회주의체제는 기존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방식에서 체제를 변용하여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개혁은 주로 經濟分野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기지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클 것이다. 즉 체

제의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인 경제분야에서의 위기수준 저하는 전반적인 위기수준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제분야의 개혁 내용으로는 대내적으로 부분적인 암거래 행위의 제도권 흡수, 시장가격에 의한 일부 공업소비재의 거래 허용, 농업 책임생산제의 도입, 부농산품 거래 허용, 기업 및 행정단위에 대한 경제분권화 정책 등이며, 대외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대상의 확대, 북·중국경지대에서의 무역거래 허용 등이 될 수 있다.²³⁾

23) 吳承烈, “北韓의 經濟政策 展望,” 제18회 民族統一研究院 國內學術會議 「金正日 政權의 向方」의 發表 論文 (1995.11.8), pp. 82~83.

제10장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15가지의 RINU 지표에 준거하여 북한의 “체제” 차원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고 내구력을 전망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는 1992년에 이미 體制危機의 臨界點에 도달하였다. 위기 임계점 통과가 곧 체제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위기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체제 차원에서 불안정하다. 또한 북한 “체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권력엘리트”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체제가 불안정한 이상 김정일이 외견상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해도 장기적으로 김정일 집권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탄 선장이 아무리 건장하다 해도 그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최대 弱點은 국제적으로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지표), 국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미약하다는 점(「대외경제관계」 지표), 곡물과 유류 등 안보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안보자원의 확보」 지표) 등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취약성은 자주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구실하에서 서방국가들에 대한 지나친 폐쇄정책을 취해 온 데서 비롯된 본질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러시아 등 기존 동맹국들로부터의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비사회주의권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이런 취약성은 체제위기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強點은 상의하달식 관료적 침투력이 아직도 무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관료기구의 기능」 지표)과 당 간부를 중심으로한 엘리트의 응집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엘리트 갈등」 지표)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상층부의 공식적인 지시전달 메카니즘과 인적 요소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강점은 친인척에 의한 권력 독점, 치밀한 계급정책을 통한 사상성 검증, “당적 지도” 원칙의 고수를 통해 사람과 기구를 끊임 없이 정비해 온 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反문화의 형성」 지표)을 알 수 있다. 단, 유의할 것은 이 지표 중 청소년문화 항목만큼은 높은 위기지수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문화가 많이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북한 체제에 위협적인 집단은 成分別로는 동요계층, 職業別로는 농민과 노동자, 學歷別로는 전문학교 졸업자와 고등중학교 졸업자, 居住地別로는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당원 멤버십別로는 非黨員 등이었다.²⁴⁾ 다시 말해서 이들 집단에 속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속성이 가장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체제유지에 상대적으로 위협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직업별에서 지식인·해외경험자가 예상과는 달리 농민·노동자에 비해 체제에 덜 위협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전자가 체제의 수혜계층으로서 일부의 불만을 감수하는 반면 후자는 생활이 열악한 소외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만일 급격한 체제변혁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촉발시키는 주체가 누구일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동요계층, 노동자와 농민, 전문학교 졸업자와 고등중학교,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비당원의 집단들이 중첩되는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疎外集團에 의해 저항이 발생할 경우,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조직화된 저항 형태를 띠기보다는 불균등한 식량분배 같은 문제에 대한 응축된 불만이 일시적으로 분출하는 非組織的 蜂起의 형태가 될 것이다. 소외된 집단에 의한 폭발적인 비조직적 봉기의 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층부의 응집성이 높고 사회통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조직적 봉기는 체제변혁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는 데 그칠 뿐, 그 이후의 변화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24) 본 연구에서는 성분별 집단에서 적대계층 그리고 거주지별 집단에서 양강도가 빠져있다.

을 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비조직적 붕기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엘리트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빚어져 예측불가능한 混沌의 상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째, 북한 당국이 현재와 같은 위기수준 증가추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위기지수가 2001년~2008년 사이에 體制變革 臨界點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시기가 체제변혁의 예상연도이며 향후 5년~12년에 해당된다.

일곱째, 만일 당국이 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공식 부문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전반적인 위기수준은 정체 내지 감소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이같은 비공식적 측면을 수용한다는 것은 漸進的 改革의 길로 들어 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개혁은 주로 경제분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수준을 억제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경제분야의 개혁 내용으로는 대내적으로 부분적인 암거래 행위의 제도권 흡수, 시장가격에 의한 일부 공업소비재의 거래 허용, 농업 책임생산제의 도입, 부농산품 거래 허용, 기업 및 행정단위에 대한 경제분권화 정책 등이며, 대외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대상의 확대, 북·중국경지대에서의 무역거래 허용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시점과 효과발휘 시점 간에는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하는 바, 단기적인 위기수준의 감

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體制變革은 반드시 총체적인 體系의 崩壞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내에서 체제변혁이 발생한다해도 주변국의 입장과 우리 한국의 대응능력에 따라 체제의 변혁이 북한이라는 총체적 체계의 해체로 진행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國際關係에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체제변혁에서 총체적 체계붕괴라는 계기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빈 면

부 록

빈 면

<부록 1>

면접 체크리스트

<면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1. 다음은 면접 체크리스트입니다. 가능한한 면접요원이 면접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직접 기록하십시오.
2. 본 체크리스트의 대부분은 면접 대상자가 귀순인사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편견을 회피하고자 사회적 지위 및 연령이 비슷한 동료집단의 의식 및 경험일반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면접 대상자의 소속직장에서의 상황을 묻는 문항들임. 따라서 면접요원은 이 점을 주시시켜 주기 바랍니다.
3. 각 문항에 대한 답의 4가지 척도(scale)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 1은 체제에 전혀 위해(危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임을 나타냄.
 - 2는 체제에 위해하지 않고 대체로 안정적임을 나타냄.
 - 3은 체제에 대해 위해하지만 정도가 낮음을 나타냄.
 - 4는 체제에 대한 위해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냄.

4. 면접시 각 문항에 대한 시기별 척도(scale)의 변화에 유념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특히 사회주의 대변혁(1989년)과 김일성 사망(1994년)을 기점으로 한 변화여부에 주의를 바랍니다.
5. 일부 질문은 첨가 설명을 요하는 바, 빈 공간을 활용하여 기록하십시오.

<공식이념의 기능: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1. 귀하의 동료들은 일상생활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특히 어떤 점에서?)
 - 1) 철저히 원리에 따라 생활함
 - 2) 대체로 원리에 따라 생활함
 - 3) 대체로 다른 생활을 함
 - 4) 철저히 다른 생활을 함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2										
3										
4										

* 아래 측정항목들에서는 위 표를 삭제함.

<공식이념의 기능: 집단주의 명제>

2. 귀하의 동료들은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1) 집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함
 - 2) 집단을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함
 - 3) 나(또는 가족)를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함
 - 4) 나(또는 가족)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함

<공식이념의 기능: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3. 귀하의 동료들은 김일성·김정일 사이의 부자간 권력승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또 김일성 사망후 변화가 있었는지?)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2)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함
 - 3)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함
 - 4)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함

<공식이념의 기능: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4. 귀하의 동료들은 김정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2)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함
 - 3)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함
 - 4)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함

<공식이념의 기능: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5. 귀하의 동료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북한식 사회주의란 수령에 의한 유일적 통치, 노동당의 지배, 자력갱생의 경제원리, 주체사상 등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는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를 말함)
- 1) 북한식 사회주의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함
 - 2) 북한식 사회주의가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함
 - 3)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함
 - 4)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함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

6. 귀하의 동료들은 당에서 주어진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일하면 보다 나은 미래를 가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1) 확실한 희망을 가짐
 - 2) 대체로 희망을 가짐
 - 3) 대체로 희망을 가지지 못함
 - 4) 전혀 희망을 가지지 못함

<미래에 대한 비전: 실질적 대가>

7. 귀하의 동료들은 직장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물질적 또는 도덕적으로 받았습니까?
- 1) 거의 대가를 받음
 - 2) 대체로 대가를 받은 편임
 - 3) 대체로 대가를 받지 못한 편임
 - 4) 거의 대가를 받지 못함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8. 귀하의 동료들은 주체사상의 자주성 원칙에 대해 ‘금지’를 가졌습니까?

- 1) 매우 금지를 가짐
- 2) 대체로 금지를 가진 편임
- 3) 대체로 금지를 가지지 못한 편임
- 4) 전혀 금지를 가지지 못함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9. 귀하의 동료들은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자주성(사상, 경제, 국방, 정치 등)이 북한 체제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바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특히 어떤 점에서?)

- 1) 매우 높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함
- 2) 대체로 이바지했다고 생각함
- 3) 대체로 이바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 4) 거의 이바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엘리트의 사기: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

10. 귀하의 직장에서 당, 정, 군 간부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내면적으로 믿는가 혹은 수혜계층으로서 이익 수호를 위해서 그러한가는 상관없음.)
- 1) 매우 긍지를 가짐
 - 2) 대체로 긍지를 가짐
 - 3) 대체로 긍지를 가지지 못함
 - 4) 거의 긍지를 가지지 못함

<엘리트의 사기: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11. 귀하 직장의 간부들이 일반주민들과 비해 부정·부패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 1) 훨씬 더적게 개입함
 - 2) 대체로 더적게 개입하는 편임
 - 3) 대체로 더많이 개입하는 편임
 - 4) 훨씬 더많이 개입함

<엘리트 갈등: 집단적 갈등 유무>

12. 귀하의 직장내 간부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의견충돌이 아닌 집단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있었다면 특히 어떤 점에서?)
- 1) 거의 없었음
 - 2) 별로 없었음
 - 3) 약간 있었음
 - 4) 매우 심했음

<엘리트 갈등: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13. 귀하의 직장 또는 귀하가 속해 있는 기관이 노동당, 정부원, 군대, 공안통제기구 등 다른 기관들과 어느 정도의 이해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있었다면 어떤 유형이 있었습니까?)
- 1) 거의 없었음
 - 2) 별로 없었음
 - 3) 약간 있었음
 - 4) 매우 심했음

<엘리트 갈등: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14. 귀하 직장의 간부들 사이에서 학교, 지역 또는 혈연에 따른 연대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생각합니까?
- 1) 거의 없었음
 - 2) 별로 없었음
 - 3) 약간 있었음
 - 4) 매우 강했음

<관료기구의 기능: 상부지침의 침투력>

15. 귀하 직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당의 지시나 노선이 최하위 실무단계 조직(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중대, 소대 등의 각 기관)까지 어느 정도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전달되지 않았다면 왜?)
- 1) 매우 잘 전달되었음
 - 2) 대체로 잘 전달되었음
 - 3) 대체로 전달되지 않았음
 - 4) 거의 전달되지 않았음

<관료기구의 기능: 하위조직의 자의성>

16. 귀하의 직장에서는 최하위 실무단계의 조직(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중대, 소대 등의 각 기관)들이 생산 또는 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자원배분, 조직관리, 시간할당 등)에 있어서 규칙을 어느 정도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1) 거의 규칙을 잘 따랐음
 - 2) 대체로 규칙을 따랐음
 - 3) 대체로 변칙 운용을 하였음
 - 4) 거의 변칙 운용을 하였음

<사적 경제영역: 사적영역의 비중>

17. 귀하의 동료들의 경제생활에서 공식 부문(월급 및 배급)과 비공식 부문(부수입, 텃밭 소득 포함) 소득 중 어떤 부분이 더 컸습니까? (비공식 부문의 소득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 1) 공식 부문이 훨씬 더 컸음
 - 2) 공식 부문이 약간 더 컸음
 - 3) 비공식 부문이 약간 더 컸음
 - 4) 비공식 부문이 훨씬 더 컸음

<생활수준: 식생활>

18. 귀하의 동료들의 식생활은 양과 질에서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 1) 매우 좋았음
 - 2) 대체로 좋았음
 - 3) 대체로 나빴음
 - 4) 매우 나빴음

<생활수준: 생필품 및 주거지>

19. 귀하의 동료들의 신발, 의복, 주거지 등 생활여건은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 1) 매우 좋았음
 - 2) 대체로 좋았음
 - 3) 대체로 나빴음
 - 4) 매우 나빴음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20. 귀하는 사회안전부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의 주민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어떤 식으로?)
- 1) 매우 잘 유지되었음
 - 2) 대체로 유지되었음
 - 3) 대체로 유지 안되었음
 - 4) 거의 유지 안되었음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21. 귀하는 부정·부패 및 범법행위에 대한 사회안전부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의 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안되었다면 왜?)
- 1) 매우 잘 유지되었음
 - 2) 대체로 유지되었음
 - 3) 대체로 유지 안되었음
 - 4) 거의 유지 안되었음

<사회통제: 이동>

22. 귀하의 동료들은 얼마나 자주 여행을 했습니까?(공식 통행증 소유여부에 상관없습니다. 주로 어떤 목적의 여행이었습니까?)
- 1) 매우 제한됨
 - 2) 대체로 제한된 편
 - 3) 대체로 빈번한 편
 - 4) 매우 빈번함

<정치적 반대: 불만표출>

23. 귀하의 동료들은 해당분야의 간부들에게 식량배급, 여행, 노동조건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을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1) 표출할 수 없었음
 - 2) 별로 표출할 수 없었음
 - 3) 약간 표출할 수 있었음
 - 4)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음

<정치적 반대: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24. 귀하는 '비공개적인' 체제비판 세력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있었다면 어떤 사회계층 또는 직업계층?)
- 1) 상상할 수 없었음
 - 2) 대체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음
 - 3) 대체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 4) 분명히 있었음

<정치적 반대: 체제비판 행위>

25. 귀하는 구체적인 체제비판 행위, 예를 들어 김일성 및 김
정일 비판의 뼈라 또는 낙서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있었다면 어떤 내용?)
- 1) 상상할 수 없었음
 - 2) 대체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음
 - 3) 대체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 4) 분명히 있었음

<反문화의 형성: 청소년 문화>

26. 귀하는 청소년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놀이문화(음악, 춤)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어떤 것들?)
- 1) 거의 없었다고 생각함
 - 2) 대체로 없었다고 생각함
 - 3) 약간 있었다고 생각함
 - 4) 매우 많았다고 생각함

<反문화의 형성: 종교활동>

27. 귀하는 북한에 종교활동이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1972년 사회주의 헌법 54조의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가 1992년 신헌법 67조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로 바뀐 것과 실제 종교활동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있는지?)
- 1) 거의 없었다고 생각함
 - 2) 대체로 없었다고 생각함
 - 3) 약간 있었다고 생각함
 - 4) 매우 많았다고 생각함

<反문화의 형성: 전통적 집단 의식>

28. 귀하는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학연, 지연, 혈연에 바탕한 사회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상관없음)
- 1) 거의 불가능하였음
 - 2) 대체로 불가능하였음
 - 3) 대체로 가능하였음
 - 4) 충분히 가능하였음

<외부 정보의 유입: 남한변화의 인지도>

29. 귀하의 동료들은 남한의 민주화 과정, 경제발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특히 어떤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 1) 거의 모르고 있었음
 - 2) 잘 모르고 있었음
 - 3) 대체로 알고 있었음
 - 4) 매우 잘 알고 있었음

<외부 정보의 유입: 중국변화의 인지도>

30. 귀하의 동료들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 성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 1) 거의 모르고 있었음
 - 2) 잘 모르고 있었음
 - 3) 대체로 알고 있었음
 - 4) 매우 잘 알고 있었음

<*외부 정보의 유입: 사회주의 대변혁에 대한 인지>

31. 귀하의 동료들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사실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 1) 1990년 말 이후
 - 2) 1990년 중반
 - 3) 1990년 초반
 - 4) 1989년 붕괴 당시

성 명: _____

32.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33. 귀하의 나이 및 생년월일은?
34. 귀하는 언제 북한을 떠나셨습니까? (년월일)
35. 귀하가 북한을 떠날 당시의 나이 및 연령집단은?(*유학생 또는 해외근무자의 경우, 주재지를 떠날 당시의 나이를 말함)
- 1) 19세 이하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69세
36. 귀하는 언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까? (년월일)
37. 귀하의 귀순동기는?
38.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1) 평양 2) 남포 3) 개성 4) 평안남도 5) 평안북도
6) 함경남도 7) 함경북도 8) 자강도 9) 양강도
10) 황해남도 11) 황해북도 12) 강원도
39. 귀하의 출생지는 어디였습니까? (도, 군)
- 1) 평양 2) 남포 3) 개성 4) 평안남도 5) 평안북도
6) 함경남도 7) 함경북도 8) 자강도 9) 양강도
10) 황해남도 11) 황해북도 12) 강원도 13) 일본 14) 중국

40.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학교 이름 포함할 것)
- 1) 대학교 2) 전문학교 3) 고등중학교
41. 귀하가 북한에서 가진 주된 직업은? (간단한 약력 포함)
- 1) 노동자 2) 농민 3) 인테리 4) 학생(대학)
- 5) 학생(고등중) 6) 군인(고급군관) 7) 군인(하급군관)
- 8) 군인(하전사) 9) 외교관 10) 대남공작원 11) 대외경제일군
- 12) 외화벌이일군
42. 귀하는 다음중 어떤 계층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 1) 핵심군중 2) 기본군중 3) 동요계층 4) 적대계층
43. 귀하는 당원이었습니까? 1) 당원 2) 후보당원 3) 비당원
44. 귀하의 연락처는 (직장 및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체제붕괴 방식과 관련한 질문>

45. 귀하는 북한이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우리식 사회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공식이념의 기능 2)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3) 엘리트의 응집 4) 사회통제 5) 외부정보의 유입차단
46. 귀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몇 년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5년이하 2) 5년~10년 3) 10년~30년 4) 30년 이상
47. 귀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다면 어떤 계기로 붕괴할 것으로 봅니까?
48. 귀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별로 없다 4) 거의 없다

49. 귀하는 현재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다른 형태의 체제가 들어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는 계속 존속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남북한 통일로 이어짐
- 2) 다른 체제가 들어섬

<부록 2>

면담자 리스트

본 면담자 리스트는 성명(영문 initial), 탈북당시 연령, 탈북전 직업, 탈북전 거주지역, 탈북년도 順으로 작성한 것임.

- AYK, 38세, 하급군관, 평양, 95년.
- CDC, 27세, 농민, 함경북도, 94년.
- CJH, 46세, 고급군관, 평양, 95년.
- CSH, 23세, 하전사, 함경북도, 94년.
- CSK, 29세, 대남공작원, 평양, 96년.
- CSW, 34세, 대외경제일꾼, 평양, 95년.
- HSI, 37세, 외교관, 평양, 96년.
- JJK, 33세, 인테리, 평양, 94년.
- JKH, 26세, 외화벌이일꾼, 평양, 94년.
- KCH, 31세, 노동자, 함경남도, 94년.
- KCS, 32세, 노동자, 자강도, 93년.
- KDH, 35세, 노동자, 황해북도, 94년.
- KKI, 35세, 인테리, 황해북도, 93년.
- KKW, 25세, 학생, 평안남도, 93년.
- KYK, 19세, 학생, 평안북도, 94년.
- LCK, 25세, 인테리, 평양, 93년.

- LCS, 36세, 노동자, 자강도, 92년.
- LHY, 28세, 노동자, 강원도, 91년.
- LJK, 29세, 외화벌이일꾼, 함경북도, 95년.
- LSO, 47세, 농민, 함경북도, 94년.
- LYS, 29세, 하급군관, 평양, 93년.
- OMS, 30세, 노동자, 평안남도, 94년.
- OSR, 60세, 노동자, 평안북도, 94년.
- PSC, 31세, 노동자, 황해북도, 93년.
- SBL, 35세, 노동자, 평안남도, 93년.
- SMC, 34세, 노동자, 황해남도, 94년.
- YMC, 48세, 노동자, 함경남도, 94년.
- YSC, 30세, 노동자, 강원도, 91년.
- YW, 27세, 학생, 자강도, 93년.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北韓 經濟制度의 問題點과 改革 展望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
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
策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북한영화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개방정책 現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軍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 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5-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 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
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
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
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
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
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結果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結果 분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研究報告書 96-2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7-9288, FAX : 237-9289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